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 2012~2015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2. 3.

관계부처 합동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009년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볼리비아 다민족(**Plurinational**) 국가로 명칭 변경 : 다민족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 규정 및 인종, 언어, 문화적 다양성 강조

<주요개황>

국 명	볼리비아 다 민족국(하위중소득국: LMICs)		
위 치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위치, 브라질의 남동쪽		
수 도	라파스(La Paz, 행정수도), 수크레(La Sucre, 헌법상 수도)		
주요 도시 (인구)	산타크루즈(160만), 코차밤바(90만), 엘알토(83만), 라파스(160만), 수크레(30만)		
인 종	케추아 원주민(30%), 혼혈(30%), 아이마라 원주민(25%), 유럽계 백인(15%)		
기 후	열대기후(저지대), 고산기후(고지대)		
종 교	로마 가톨릭(95%), 기독교(5%)		
면 적	110만km ² (한반도의 5배)	GDP (2010)	\$196억
인 구 (2010)	990만 명	1인당 GDP (2010)	\$1,979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주요정당	사회행동당(MAS) 민족주의 혁명운동당(MNR) 사회민주세력당(PODEMOS)
통화단위	볼리비아노(BS)	주요 부존자원	주석, 납, 아연, 천연가스
산업구조 (2008)	서비스업 52%, 제조업 37%, 농업 11%	주요수출입품 (2009)	수출품: 아연, 금, 대두, 천연가스 수입품: 석유제품, 제지, 항공수송기, 자동차
대외정책	사회주의 친 서방 노선	언 어	스페인어, 케추아어, 아이마라어
한국과의 수교일	1965. 4. 25. (※북한과는 미수교)	무역관계 (2010)	수출(한국⇒볼리비아: 5,779백만 달러 수입: 4,864백만 달러

*출처: 인구, GDP, 1인당 GDP는 World Bank 통계인용, 그 외 CIA-The World Fact Book, 외교통상부, 국정원, 수출입은행 자료인용

목 차

I. 볼리비아의 개발환경	1
1. 볼리비아의 주요 특성	3
2. 국제사회의 원조현황	23
II.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32
1.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32
2. 종합분석	37
III. 한국의 볼리비아 지원현황	38
1. 지원현황 및 특성	38
2. 지원에 대한 평가	41
IV. 한국의 볼리비아 협력전략	45
1. 볼리비아 협력의 기본방향	45
2. 협력분야	51
3. 범 분야(성 평등, 환경)지원계획	66
4. 사업형태별 지원계획	68
V. 이행전략	73
1. 예산 및 조직	73
2. 연계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74
3.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전략	75

목 차

VI. 성과관리 방안	78
1. 모니터링	78
2. 평가방안	80
VII. 볼리비아 ODA관련 고려사항	82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83

[참고1] 남미지역의 국가별 열대풍토병 일람표

[참고2] 주요 빈곤지표

[참고3] 주요 경제지표

[참고4] 볼리비아 CPS 수립경과 보고

[참고5] 참고문헌

- ◇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은 2012-2015년 간 대한민국 정부의 대 볼리비아 최상위 공적개발원조계획으로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정책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공함.
- ◇ 볼리비아는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Evo Morales Ayma) 정부수립 이후,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광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우호적 대외환경이 조성되어 양호한 경제성장을 달성함.
- ◇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나 총 인구의 **48%**가 빈곤층에 속하며, 지역·계층별 소득불균형 격차가 심한 국가에 속함.
- ◇ 이러한 소득불균형은 장기간 동안 정치·경제적인 소외현상과 불평등이 구조화된 역사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와 서부지역 간 불균형 현상과 전체인구 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 계층에서 빈곤현상이 두드러짐.
- ◇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 정부는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과 경제·사회개발계획이라는 상위 국가개발전략 하에 ‘다민족’, ‘국가경제’, ‘자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특히 자원에 대한 정부의 권한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창출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함.
- ◇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계층 간 합의를 토대로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이에 한국은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의 4가지 영역 중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와 품위 있는 볼리비아(**Bolivia Digna**) 및 이에 따른 분야별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하기 위하여 볼리비아의 지역통합, 경제구조혁신,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농촌지역의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분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자 함.
- ◇ 다만, 한국은 현재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 지속가능성, 지역과 계층 간 갈등 확산 등 정치적인 위험성과 한국의 짧은 지원 경험, 인적·물적 협력기반 미비 등 개발제약 요인과 특성에 대해 고려, 2015년 까지 우선적으로 양국 간 정책협의를 현재 진행사업을 반영하여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전환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 동 전략을 통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원조기관 간 연계와 역할분담을 강화함으로써 원조분절화를 극복하며, 국제적으로는 타 공여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 한국은 OECD/DAC 회원국으로서, 개발협력의 국제적인 규범을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에 충실히 반영하고, 한국 ODA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조 수행과 함께 볼리비아의 행정 부담을 감소해 나갈 예정이다.
- ◇ 동 CPS는 한-볼리비아 사전정책협의회, 국내 관계기관 협의회, 전문가 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수립되었으며, 향후 볼리비아의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I. 볼리비아의 개발환경

- 중남미 국가 중 최빈국이자 소득 불균형 정도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며 **2000년대 들어 2% 미만의 경제성장률 기록**
 - 1990년대 후반의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따라 주 수출품인 광물자원의 국제적 교역조건 악화

- 2006년 이후 4%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1인당 GDP는 1,900불 수준으로 총인구의 48%가 빈곤층에 속하며, 특히 농촌지역 주민의 80%는 빈곤층에 해당**
 -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원인은 1차 산품 수출의존적 경제 구조, 취약한 기업환경,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높은 노동 인구 비율,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에서 기인
 - 자원배분에 있어서 지역·계층별 불평등한 구조를 보유하고, 특히 소수 특정계층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이 심각
 - 원주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사회, 경제적인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환경악화, 계층간 갈등 속에서 빈곤과 불평등 상황 지속

- 새천년개발목표(MDGs)관련,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지표에서 2015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움. 특히,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중남미 평균(**0.704**)보다 낮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기록(0.643)
 - *인간개발지수(2010): 169개국 중 95위
 - 최근 5년간 문해율, 교육연수, 영양상태, 전문시설에서의 출산율, 질병퇴치, 식수 및 위생서비스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

- 국내외적인 개발환경을 토대로 에보 모랄레스 아이마(Evo Morales Ayma) 현 정부는 ‘다민족’, ‘국가경제’, ‘자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탄화수소 자원의 국유화와 연방정부 중심의 세수인상을 통해 빈곤퇴치, 교육, 사회복지 개선 등 일련의 정책 추진
 - *주요현안: 신헌법, 지방자치 강화, 탄화수소 수입의 분배, 수도로서 수크레 지위 격상
 - 다민족 : 헌법상 36개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체 민주주의 실현
 - 국가경제 : 대농위주의 농업정책 탈피, 소농지원, 토지개혁, 천연가스 개발과 상업화 권한에 대한 국가역할 강화
 - 자치: 기본기능을 제외한 분야에서 지방정부에게 38개의 권한 양도

- 2005년 현 정부의 정치·경제적 개혁과정에서 정치소요와 폭력 사태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사회적 갈등은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와 동부지역의 자치분쟁으로 표출
 - 특히, 토지와 천연가스의 소득 분배문제 등 자원소유권과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 불안 확산
 - *원주민(서부고원지대)과 백인 이주민(동부평야지대)을 중심으로 인종, 지역 간 대립구도 형성

- 향후 한국의 대 볼리비아 국별협력전략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통합을 고려

1 볼리비아의 주요 특성

1. 정치현황

- 스페인 독립(1825년)이래, 1981년까지 **156년 동안 193회의 반란과 쿠데타 발생** 등 정치적 혼란 지속
 - 역사적으로 천연가스 국유화와 신자유주의 정책 등이 주요 이슈로서 정정 불안을 야기
- 2010년 1월,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의 재임으로 기존 **주요산업(에너지, 광업, 통신)에 대한 정부권한의 강화**
 - 천연자원 확보와 부의 분배문제 관련,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 빈번한 충돌 발생
 - 볼리비아 정부의 코카 재배권 제한 폐지와 천연자원의 국유화 정책 강화로 미국과의 갈등 발생
- 자원분배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방자치 분쟁이 최근 주요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
 - 1980년대 이후 최대 수출자원인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 정부 전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시도로부터 자치분쟁(산타크루즈, 베니, 판도, 타리하)의 역사가 기인

*2008년 기준, 천연가스는 국가수출의 46%와 세입의 23% 차지

2. 경제현황

- 1990년대 시장개방을 본격화했으며, 석유, 천연가스, 금, 주석 등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이지만 절대빈곤과 빈부격차 등 사회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중남미 최빈국**

*에너지와 광물자원은 장기적인 성장기반 구축과 빈곤감소를 위한 토대로서 역할

- 전체인구의 3분의 2가 원주민이며, 인종과 지역별로 자원배분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어 이에 따른 빈부격차 발생
- 1차 산품 중심(농업, 광업)의 수출 형 산업구조를 보유함으로써 국제가격변동과 기후변화에 취약
- 국내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며 초보적인 산업발전 수준 유지
 - 천연가스와 원유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의 주요인으로서 전체 FDI의 절반 차지
 - 정부는 재정수입의 50%이상을 천연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 변동이 경제전반과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산업구조(2009년, %): 제조업 12%, 농축수산업 11%, 광업 13%, 서비스업 27%, 기타 37%

- 세계 코카생산의 **30~40%** 점유하는 국가로서 2009년 코카재배 합법화

□ 2006년 에보 모랄레스 정부수립 이후, 정당체제 구축, 인권개선 등 정치발전과 우호적인 국제환경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유지**

- 정부의 자원에 대한 권한 강화정책이 정치적 위험요인으로 고려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위축되었으나, 천연가스*와 광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특혜관세, 해외 근로자 송금확대**로 인해 **2006~2008년 연평균 4~6%대의 경제성장률 기록**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 매장량(24조 입방 피트)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수출을 국가경제발전의 주요한 전략으로 설정

**볼리비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인접국에 거주하는 볼리비아인 (약 200만명)의 자국 송금액은 10억불에 이르며, 이는 ODA지원액의 약 3배, FDI의 2배에 상당

- **2009년** 미국의 마약퇴치법 혜택 중단, 외국인 투자 감소, 1차 산품 가격하락, 해외근로자 송금감소로 **성장 둔화**
- **2010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 아르헨티

나의 높은 성장,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4%대의 양호한 경제 성장률 달성**

*경제성장률(%): ('07)4.6%→ ('08)6.1%→ ('09)3.4→ ('10)4.0%

□ 2004년 이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대체로 증가했으나 볼리비아보다 GDP규모가 적은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에 비해서도 **미진한 실적을 기록**

- 이는 볼리비아의 불확실한 투자법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정부권한 강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확산 등 높은 정치적 위험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임.

*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 Rank"(2010): 183개 국가 중 149위

□ 고 채무빈국(HIPC) 수혜에 이어 다자간외채감축구상(MDRI)에 따라 2006년 IMF,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의 채무 18억 달러를 탕감 받음으로써 **외채규모 축소**

-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지속적인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으로서 **향후에도 관리 가능한 수준전망**
- 2010년 말 GDP 대비 총 외채비율은 31.7%, D.S.R.은 8.4%로 최근 개선추세를 보여 왔으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잔액도 2002년 69%대에서 2010년 8%대로 호전되는 등 전반적인 외채 관리 수준 양호
-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2010년 말 기준, 97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기록,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보유**

*2008~2009 무디스(B3→B2), 피치(마이너스B→B)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옵서버 국가이자, 안데안 공동시장(CAN)의 회원국으로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치·교역 관계 유지**

-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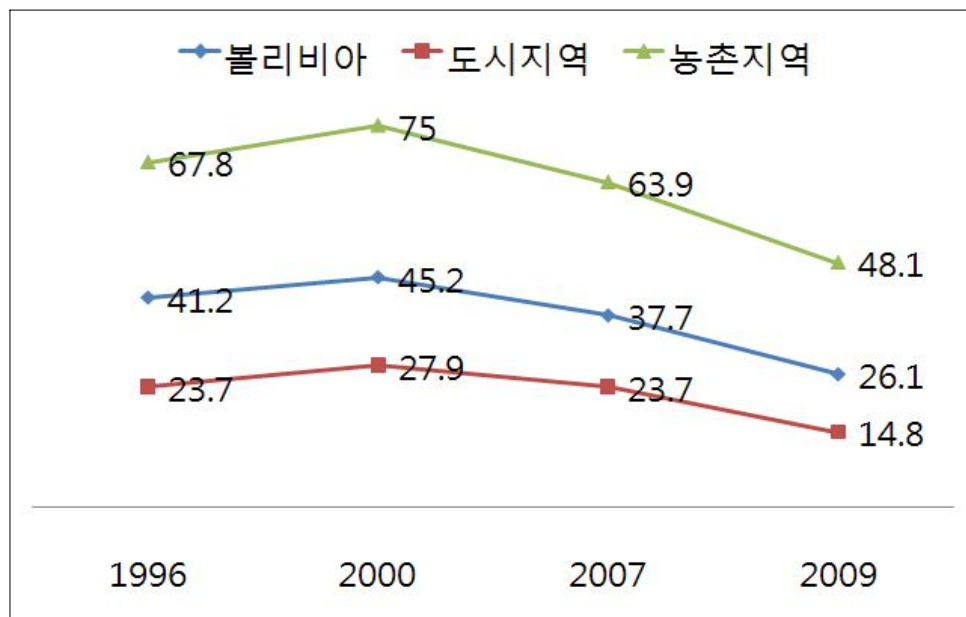
□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

- 외부적인 요인 : 미국 경제상황, 외국인 투자 유입추세, 해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국제 원자재 가격
- 내부적인 요인 : 1차 상품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근본적 취약성, 주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의 통제강화, 소득불균형 지속과 이에 따른 사회계층간 갈등발생, 그 외 치안부재와 마약문제 증가

3. 빈곤감소 현황

-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절대 빈곤계층 비율이 약 **15%** 감소함으로써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할 때 평균 **26%대**의 높은 수준 유지

<절대 빈곤계층의 추이>



*출처: UDAPE(2010)

- 볼리비아의 빈곤은 장기간 동안 정치, 경제적인 소외현상과 불평등이 구조화된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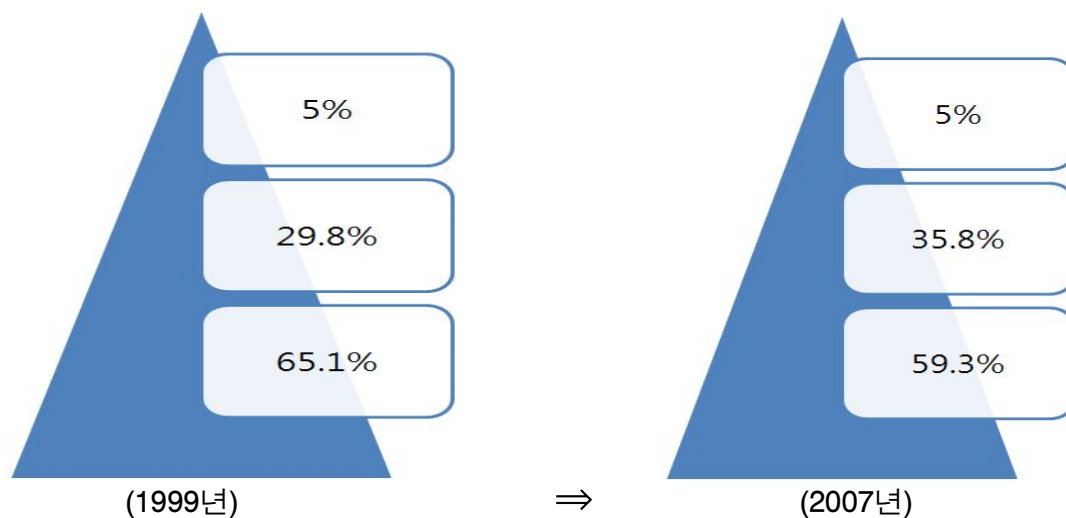
*중산층 비율: 1999년 29.8%⇒2007년 35.8%

- 신자유주의 정책 이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외 발생

*2010년 지니계수: 0.643

- 1999년과 2007년 동안 하위계층의 감소 비율 미비, 가계소득의 집중화 현상 지속

<계층 별 사회구조의 변화과정(1999~2007년)>



<가계소득 집중화 현상(1970-2007)>

구분	1970-74년	2007년
상위 20%	59%	60%
하위 20%	4%	2%

*출처: UD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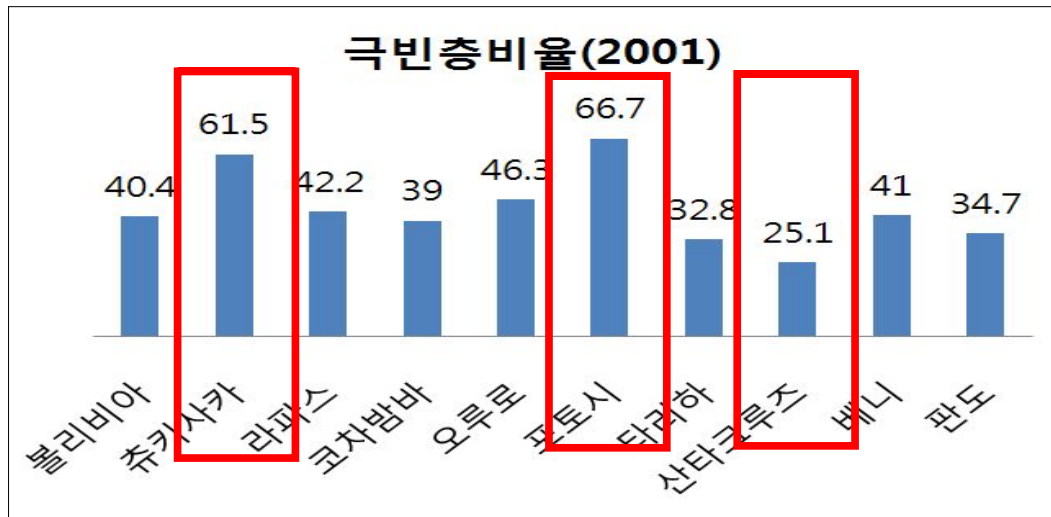
□ 인종과 지역(주)별 빈곤격차

- 2001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전체의 **60%**가 원주민이며, 30여 종족그룹과 언어가 존재, 스페인어 외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 사용
- 백인과 원주민("indigenous"), 원주민("indigenous", 주로 아마존 지역 lowlands와 동부 El Chaco 거주)과 토착민("native people", highlands, 알티플라노와 계곡거주) 간 갈등 외, 서부지역 백인(남미 북부출신)과 동부지역 백인(아르헨티나 출신)간의 갈등

○ 지역(주) 간 큰 폭의 빈부격차 존재, 특히, 동부와 서부지역 간 양극화 현상 발생

*절대빈곤 비율이 가장 낮은 산타크루즈(25%)와 가장 높은 포토시(66.7%) 및 cb키사카(61.5%) 간 높은 격차(약 40%)발생

<지역(주)별 극 빈곤계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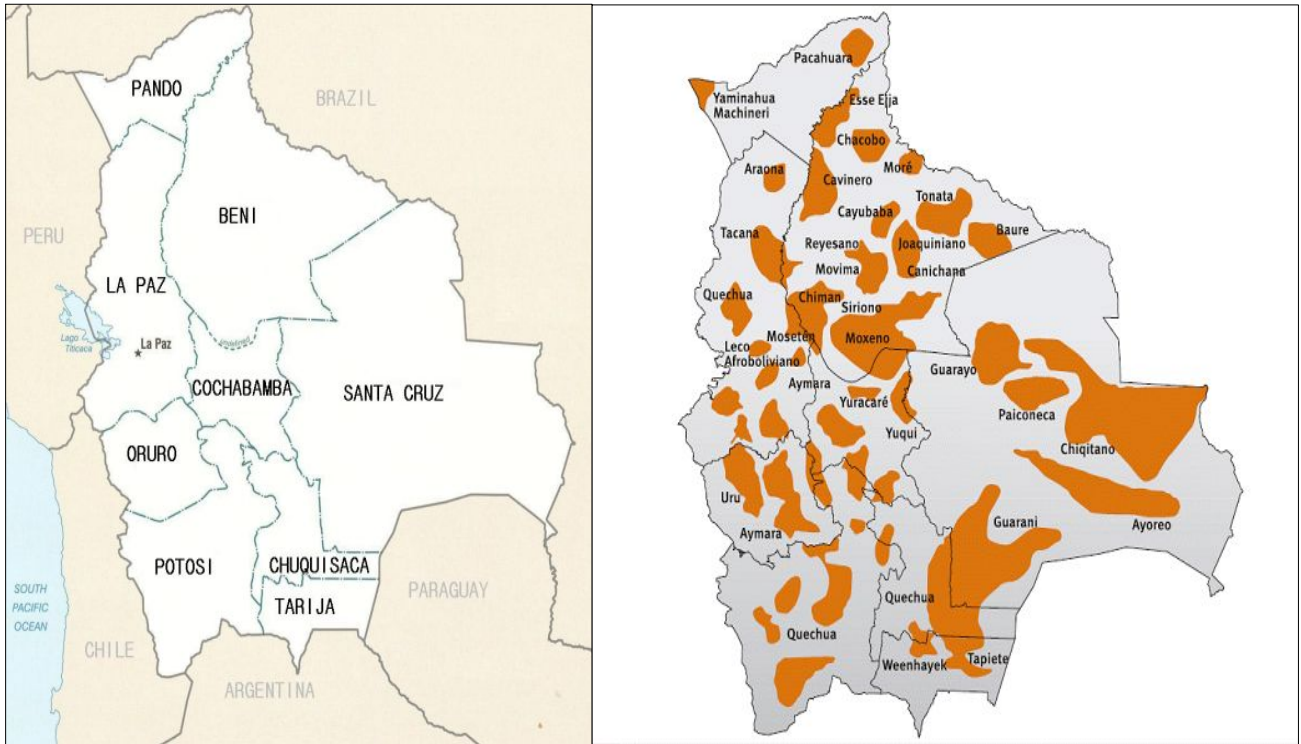
*출처: UDAPE

- 동부지역에 주로 집중된 경작지, 대규모 농산업, 광물자원으로
서부와 동부지역 간 정치·경제적인 갈등 발생

*산타크루즈, 베니, 판도 등 동부 3개주는 전체 경작지의 77% 보유
타리하 주는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85%가 집중

- 최근 서부에서 동부로의 원주민 이주정책에 따라, 지역별 인종 구성(케추아, 아이마라, 치키타노, 과라니, 모헤노 등), 원주민 비율,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이 다양화되는 추세
- 역사적인 불평등(인종, 성별, 도농 간 격차)외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외 발생
 - 노동시장에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전문직과 비전문직 종사자간 임금격차 등 노동 인구의 계층화
 - 해외 송금으로 인한 소득증대 가능성과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에서 차이 발생

<지역별 원주민 분포비율>



*출처: UNDP(2010)

<지역별 인구 및 빈곤비율>

지 역(주)	인 구(2009)	원 주민** 비 율(2001)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009)	빈곤율(2001)
베니(Veni)	437,636	32.8	1,049	76.1
포토시(Potosí)	784,265	83.9	1,352	79.7
판도(Pando)	78,250	16.2	2,000	72.5
산타크루즈 (Santa Cruz)	2,706,465	37.5	1,693	38.1
코차밤바 (Cochabamba)	1,824,082	74.4	1,389	54.9
라파스(La Paz)	2,798,653	77.5	1,451	66.3
추키사카(Chuquisa)	640,768	65.6	1,196	70.1
타리하(Tarija)	509,708	19.7	3,353	50.8
오루로(Oruro)	447,468	73.9	1,489	67.8
볼리비아 전체	10,227,299	62.0	1,619	58.6

*출처: 볼리비아 통계청 및 문남권(2009)을 토대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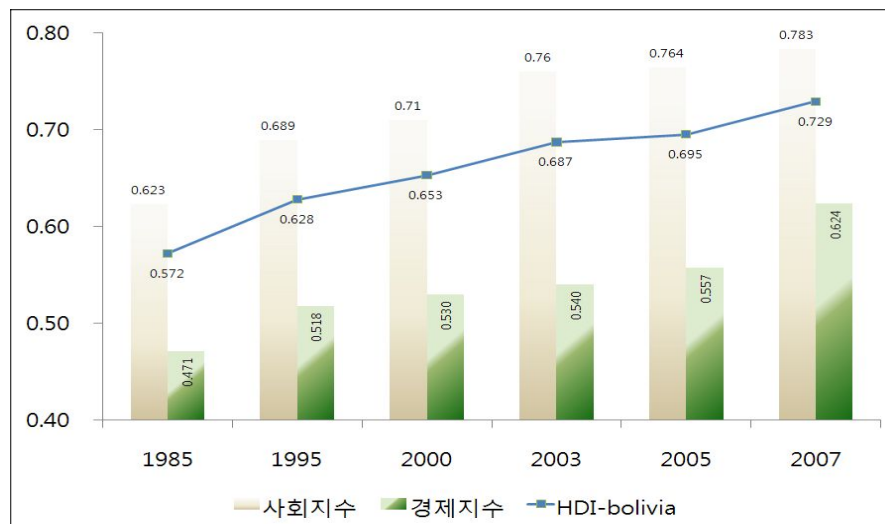
- 빈곤의 원인*은 1차 상품 수출에 기반한 경제구조, 자원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과의 불리한 계약체결, 도로와 항구 등 기반시설 부족, 불평등한 자원과 토지분배 지속, 소수에 의한 정치·경제 권력의 독점에서 기인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참조

4. 인적자원 개발

- 최근까지 이루어진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1985년(0.572)부터 2007년(0.729)까지 인간개발 지수(HDI)가 **0.15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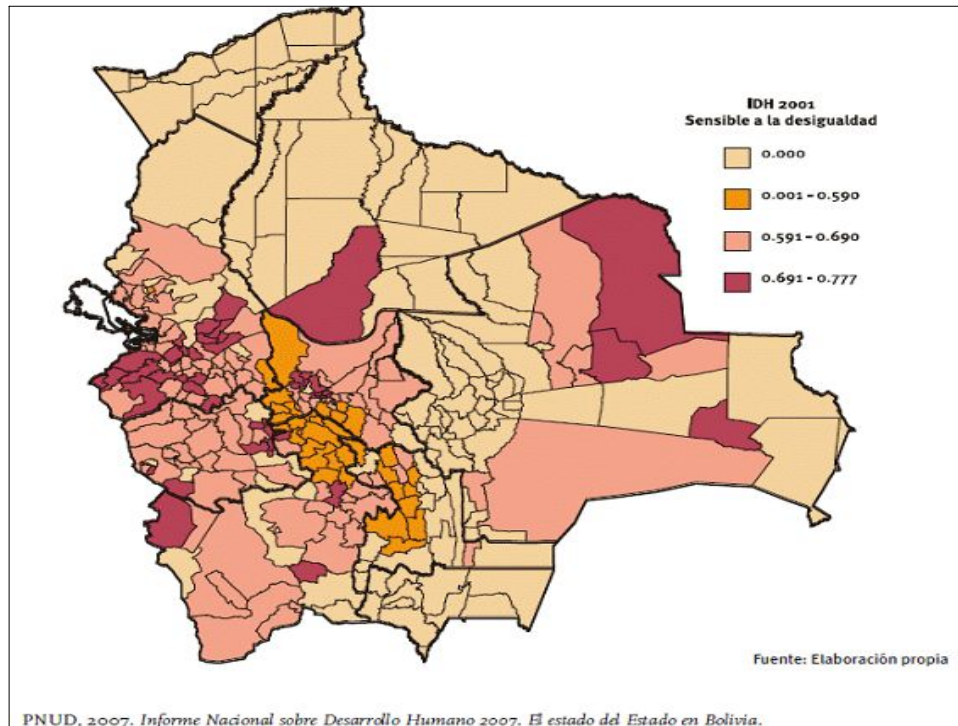
<HDI와 구성요소의 발전 추이>



*출처: UNDP(2010)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3차 산업의 발전, 교육과 보건 분야의 사회정책 추진
- HDI를 구성하는 사회지수(0.623⇒0.783)와 경제지수(0.471⇒0.624)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개선속도가 빠르지 않음.
- 원주민 인구비율이 높은 서부(포토시, 코차밤바, 라파즈, चु키사카)와 동부지역(산타크루즈, 타리하)간 격차지속

<지역별 인간개발지수(HDI)상황>



□ 초등교육 관련지표 개선, 특히 15~24세 문해율에서 괄목할만한 성과

*2007년 19세 이상 인구 중 초중고 졸업 92%, 고등학교 졸업 57%, 대학이상 졸업 6%

○ 초등기관 등록율과 이수율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지역 간 격차발생

*초등교육(8년) 이수율: 오루로와 라파즈의 경우 80%이상이나 추키사카는 60%에 이르지 못함.

○ 문맹률의 경우 2010년 1%미만으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Yo Si Puedo"라는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통해 획기적으로 감소

*2005~2007년 동안 15~24세 청소년 대상 문해율은 99.4%로 중남미 국가 중 쿠바(100%)에 이어 가장 높은 성과기록

<지역별 교육관련 지표현황>

지역(주)	HDI(2007)	1976~2007년간 HDI 증가율(%)	초등교육 등록률(2008)	초등교육(8년) 이수율(2008)
베니(Veni)	0.671	22	96.3	74.4
포토시(Potosí)	0.575	60	90.3	66.1
판도(Pando)	0.702	42	96.8	63.1
산타크루즈 (Santa Cruz)	0.716	28	89.0	77.8
코차밤바 (Cochabamba)	0.662	54	92.0	73.6
라파스(La Paz)	0.682	42	90.1	87.8
추키사카 (Chuquisa)	0.611	79	84.3	57.5
타리하(Tarija)	0.742	50	85.3	74.8
오루로(Oruro)	0.678	39	93.5	88.9
볼리비아 전체	0.729	-	90	77.3

*출처: UDAPE(2010)& UNDP(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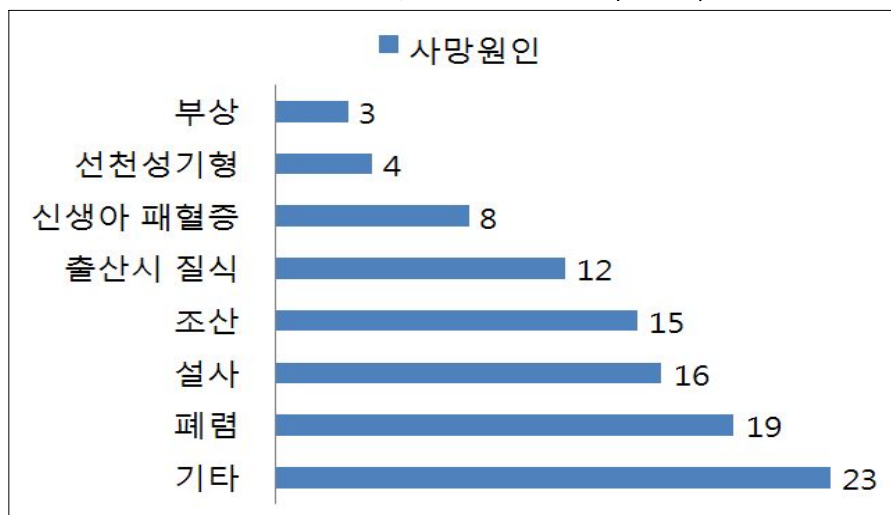
- 기존 교육정책인 일방적인 **스페인어화(Castellanización)**로 인해 원주민 학생들은 낮은 학업 성취율과 높은 중도 탈락률 기록
 - 2007년 기준 15세 이상 원주민의 평균 교육연수는 7.2년이나 비 원주민의 경우 10.5년으로 인종별 격차발생
 - *사용 언어별 인구분포(중복된 경우 포함): 스페인어 83%, 케추아어 20%, 아이마라어 25%, 파라니어 및 기타 1%

- 2006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이후, 케추아어, 아이마라어는 헌법상 공용어로 격상
 - 스페인어를 중심으로 했던 단일 언어주의 정책에서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다 언어주의 정책으로 개혁
 - *2009년 공포된 신헌법에는 총37개 언어를 공용어로 인정
 - 국민통합에 기반한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dad)**과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현재 교육정책을 고려한 지원 필요

5. 보건·의료

- 공여국 ODA 중 절반이 보편적인 기초교육 향상(MDGs 목표2)과 유아사망을 감소(목표4) 및 산모건강 증진(목표5)에 지원
- 유아사망을 감소와 모성사망비 개선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본 분야에서 대체로 진전이 있었으나 5세 이하 아동사망률의 경우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다음으로 열악

<5세 이하 아동 사망원인(2008)>



*출처: WHO(2011)

- 사망률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률, 영양, 식수개선 등 전반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강화 필요
- 모성사망비 감소를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을 향상 등 종합적인 접근 필요

*100,000명당 모성사망비: 1989년 416⇒ 1994년 390⇒ 2000년 235⇒2003년 229, 중남미 평균 2003년 130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2003년 58.6%⇒2008년 65%

<지역별 보건지표현황>

지역(주)	1000명당 유아 사망률 (2008)	1000명당 아동 사망률 (2008)	15~19세 여성 천명당 출생률 (2008)	전문인력에 의한 출산율 (2009, %)	임산부 4회 이상 검진비율 (2008)	HIV/AIDS 확산율 (백만 명당, 2009)	말라리아 발병건수 (2009)
베니(Veni)	56	39	145.7	78.7	77.8	0	5067
포토시(Potosi)	126	101	112.2	57.4	65.1	0	114
판도(Pando)	62	47	145.7	78.3	85.1	0	1416
산타크루즈 (Santa Cruz)	46	31	107.2	67.9	84.3	148	1187
코차밤바 (Cochabamba)	85	63	89.2	68.9	69.2	149	72
라파스(La Paz)	81	63	63.8	62.7	63.9	34	547
추키사카(Chuquisa)	56	42	81.1	64.5	82.7	14	88
타리하(Tarija)	48	37	79.8	68.9	82.9	44	1252
오루로(Oruro)	69	56	80.4	86.3	68	58	n/a
볼리비아 전체	63	50	88.8	67.0	72.3	83	9743

*출처: UDAPE(2010)

☐ HIV/AIDS 및 말라리아 등 질병과 관련하여, 취약한 특정지역과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targeting)필요

*HIV/AIDS확산 비율이 높은 지역(2009): 코차밤바(백만 명당 149), 산타크루즈 (백만 명당 148)

*말라리아 발병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2009): 베니(5067건)

☐ 안전한 식수와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도농간 격차 발생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2007년 물 접근비율: 75%(도시지역 94.8%, 농촌지역 39.4%)

6. 법·제도적 역량강화

☐ 볼리비아는 다민족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정체성 규정

○ 인종, 언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강조하는 법·제도 및 행정개혁 추진

- 이러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계층별 갈등은 **향후 국가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지적
 - 주요한 사회적인 갈등은 ①**자치분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특정지역 간의 갈등 ②**원주민과 비원주민을 망라한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을 위한 욕구로부터 발생**
 - 이러한 갈등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역량 미비**
 - 공공재정 관리, 조달시스템 등 **국가 재정 시스템과 역량 부족**
- 주요 전략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 공공분야의 부패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내 **제도적인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을 위한 부처(Ministry of Institutional Transparency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설치
- 2010년 국제투명성 기구에 의하면, CPI지수 2.8, 178개국 대상 110위로서 **투명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
- 볼리비아 정부는 자원에 대한 국가 권한의 강화와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이익의 재분배와 같은 **전략자원의 개발과 성장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정책추진**
- 법·제도적 기반구축, 행정기관의 **역량제고 및 효율화, 반부패 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필요**
 - 자원의 소유권과 이익의 재분배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역량 강화 필요**

7. 지속가능한 환경(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사막화)

- 광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자원개발 필요**

○ 광물자원 및 농업개발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지역의 원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 노력

- 탄화수소 채취, 벌채, 코코아 경작지 확대 등 무분별한 개발과정에서 산림 황폐화, 생물의 다양성 감소, 토양침식과 사막화현상 발생

□ 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홍수, 가뭄, 사막화, 엘니뇨/라니냐, 산사태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자연재해 발생

○ 고지와 계곡의 물 부족 현상과 식수의 질 저하 등 지역주민의 식량안보와 보건문제 유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2006~2007년 총 80만명 피해, 8억불 손실/ 경제성장률의 4% 상당

○ 과거와 비교할 때 위생시설과 식수 접근비율이 호전되었으나,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음.

○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격차 발생,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피해가 농촌에 집중

*볼리비아 주민의 37%가 2개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

○ 인구밀도, 공기오염과 토양침식 등의 문제는 전반적인 빈곤과 보건문제에 영향

*전기 보급률(2007): 80%(도시98%, 농촌 47%)

*상수도 보급률(2007): 76%(도시 95%, 농촌 39%)

<지역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최근 30년간 평균 강수량(mm)
알티플라노(Altiplano): 판도, 라파즈 북쪽	점증적 강우량 증가, 단기간의 우기동안 해일폭풍 집중발생, 강하천의 낮은 우량, 물 부족, 전력생산 차질	504~1938
안데스계곡(Andean Valley): 라파즈, 오루로, 코차밤바, 추키사카, 타리하 부분	점증적 강우량 증가, 단기간의 우기동안 해일폭풍 집중발생, 전력생산 차질, 물 부족, 건기 증가, 사막화, 토양침식, 빈번한 가뭄, 강하천의 낮은 유량	389~650

차코(Chaco): 포토시, चु키사카, 타리하 부분	물 부족, 가뭄, 생물의 다양성 손실, 토양 침식, 사막화, 수원오염	373~650
아마존 유역(Amazon): 산타크루즈, 베니	점증적인 강우량 증가, 흐린 날의 빈도수 증가, 여름철 고온다습과 겨울철 심한 건조 기 증가	1504~1888

*출처: 볼리비아 기후변화 국가프로그램(National Program for Climate Change, 2008)과 하상섭
(2011)을 토대로 필자 재작성



*출처: JICA(2001)

8. 양성평등 및 인권

☐ 빈곤과 양성평등 이슈와의 높은 연관성

- 가부장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지위가 대체로 약화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활동비율과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보건과 교육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정, 노동시장, 정치영역에서 불평등 발생

*Global Gender Gap Index(2010): 134개국 중 76위

- 가정 내에서의 여성(특히, 원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 지속

*2008년 여성의 28%가 육체적, 성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남성의 경우 17%가 육체적인 폭력에 시달림.

- 광업부문에서 아동의 노동착취, 열악한 노동조건, 인신매매 발생
- 원주민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회복과 관련된 움직임 제한

- 초·중등교육의 접근성과 15~24세 청소년 대상 문해율에 있어서 대체로 양성평등이 대체로 실현되었으며, 초등교육에서 여아의 이수율 개선

*1992년⇒2008년 초등교육에서 여아 이수율: 52.1%⇒78.2%, 남아 이수율: 58.7%⇒76.6%

- 지역별 쿼터제로 인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수준에서 여성의 지위개선

- 2009년 12월 선거이후, 국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2009선거 이후 총 의원 130명 중 여성의원 수 30명(23.1%) 차지

- 비농업분야에서 원주민과 비 원주민 여성의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 개선의 필요성 대두

*1996년⇒2009년 비농업분야에서 원주민 여성 진출비율: 22.9%⇒30.6%, 동기간 비원주민 여성 진출비율: 34.3%⇒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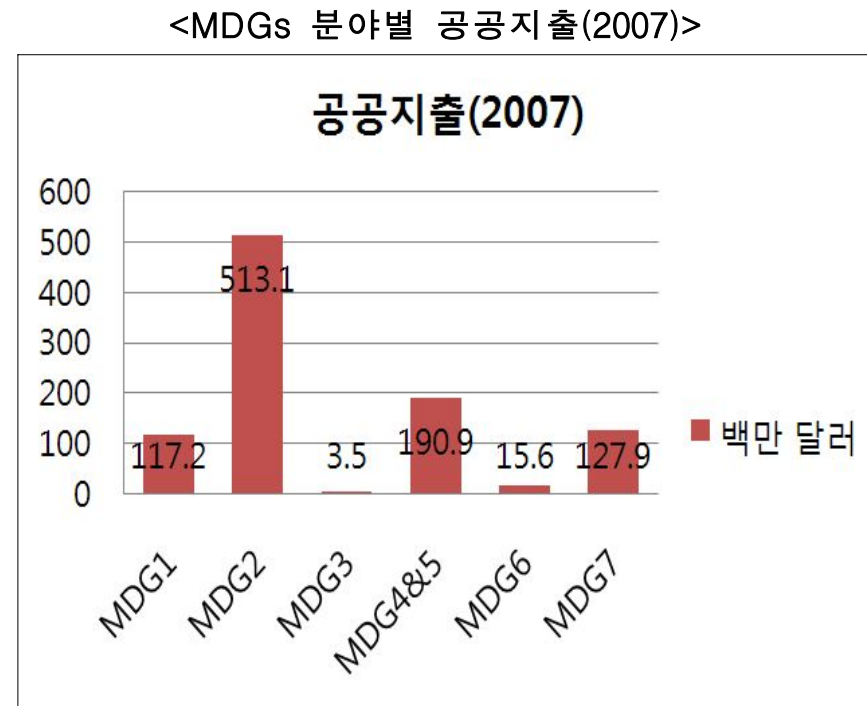
- 1999년과 2008년 동안 도시지역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의 소폭 감소

*1999년 비공식부문 종사비율: 64.2%(남성 55.5%, 여성 75.3%)⇒2008년 62.5%(남성 57.7%, 여성 71.6%)

9. 종합분석

- 인종·계층·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실현가능한 빈곤감소 비율의 불확실성
 - 기존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여성, 원주민)의 참여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민주화 실현
 - 정치·법적인 영역에서 개선되었으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평등 지속
 -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직업창출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면서 직업창출이 실제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지 못함.
 - 실질적인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의 임금구조 개선 필요
- 2007년 MDGs목표별 공공지출 지원규모에 의하면, **MDGs2(보편적 초등교육달성)**와 **MDG4(아동사망률)** 및 **MDG5(산모건강증진)** 순으로 지원
 - 최근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가 중시됨에 따라, MDGs7(지속가능한 환경확보)에 대한 지원확대
 - 향후 지속적으로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
 - 초등교육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으나, 교육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필요
 - 유아와 모성사망비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
 - 농촌지역의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산전관리, 안정적인 출산 서비스 제공, 영양, 질병관리 체계 강화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성별격차 개선필요
- 도시지역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
 - 아동노동, 중등교육에서의 중퇴율, 실업율, 범죄조직, 마약문제 등



*출처: UDAPE(2010)

< 볼리비아 새 천년 개발목표(MDGs) 분야별 달성현황 >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진행상황				상황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세부목표 1A: 일일소득 1달러 미만 인구비율 절반감소	- 절대빈곤 비율(%)	41.2 (1996)	26.1 (2009)	24.1	-2	개선 달성가능
세부목표 1C: 기아인구 비율 절반감소	- 만성적인 영양결핍의 3세 이하 아동비율 (연령 대비 신장, %)	37.7 (1989)	20.3 (2008)	19.0	-1.3	개선 달성가능
	- 5세 이하 영양결핍 아동(연령 대비 체중, %)	13.2 (1989)	6.1 (2008)	6.6	0.5	개선 달성가능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2A: 남녀아동의 초등학교 이수	- 초등학교 등록률(%)	94.3 (2001)	90.0 (2008)	100	10.0	개선필요
	- 초등학교 8학년 이수율(%)	74.0 (2001)	77.3 (2008)	100	22.7	개선필요
	- 15~24세 문해율(%)	97.4 (2001)	99.4 (2008)	100	0.6	괄목할 만한 개선
목표 3	양성평등 실현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3A: 초등과 중등교육에서 성별불균형 제거	- 초등기관(8년)에서 성별격차	2.8 (2001)	-1.8 (2008)	0.0	-	달성
	- 중등기관(4년)에서 성별격차	1.2 (2001)	-1.4 (2008)	0.0	-	달성
	- 15~24세 인구 중 문해율(남성 대 여성비율)	98.0 (1997)	99.6 (2009)	100	0.4	달성가능
	- 비 농업분야 임금노동자 중 여성비율(%)	31.3 (1999)	34.7 (2009)	-	-	-
	- 여성의원 의석 점유율(%)	-	23.0 (2009)	-	-	-
목표 4	아동사망률 감소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4A: 5세미만 유아사망률 2/3감소	- 1,000명당 유아사망률	129.4 (1989)	63.0 (2008)	43.1	-19.9	개선필요
	- 1,000명당 5세 이하 아동사망률	81.9 (1989)	50 (2008)	27.3	-22.7	개선필요
목표 5	산모건강 증진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5A: 산모사망률 3/4감소	- 100,000명당 산모사망비	416 (1989)	229 (2003)	104	-125	개선필요
	- 전문보건 직원의 도움 하 출산율(%)	33 (1996)	67 (2009)	70	3	달성가능
세부목표 5B: 출산관련 보건혜택	- 피임기구 사용비율(%)	30.3 (1996)	67 (2009)	-	-	-
	- 15~19세 여성 1천 명당 출생률	94.3 (1989)	88.8 (2008)	-	-	-
	- 임신부 여성의 4회 이상 검진비율	31.9 (1989)	72.3 (2008)	-	-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각종 질병 퇴치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6A: HIV/AIDS의 확산을 멈추고 감소세로 전환	- HIV/AIDS 확산율(백만명 당)	2.5 (1996)	82.6 (2009)	13.0	-69.6	개선필요
	- 15~24세 HIV/AIDS 확산율(백만명 당)	-	599 (2009)	-	-	-
세부목표 6C: 말라리아 및 다른 주요 질병의 발병률 증가를 막고 감소세 전환	- 천 명당 말라리아 API 지수	7.5 (1990)	2.8 (2009)	2.0	0.8	달성가능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상황
세부목표 7A: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국가정책 및 프로그램에 포함	- 총 국토면적 중 산림면적(%)	-	53.4 (2009)	-	-	-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오존파괴 잠재력 톤)	80.3 (2001)	9.0 (2008)	0	-9.0	달성
세부목표 7C: 안전한 식수, 기초위생 환경에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 절반 감소	-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율(%)	57.5 (1992)	74.6 (2008)	78.5	3.9	달성가능
	- 기본 위생시설에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28.0 (1992)	48.4 (2008)	64.0	15.6	개선필요
목표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준 (연도)	최근 연도	2015목표	격차	
세부목표 8A: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고 차별 없는 무역 및 금융체계발전	- 선진국에 의해 허용된 수출품 무관세 비율 (%)	-	35.59 (2008)	-	-	-
세부목표 8F: 민간부문협력 및 신기술, 특히 정보통신의 혜택	- 농촌 및 도시의 유, 무선전화 가입률(%)	-	89 (2008)	-	-	-
	- 농촌 및 도시의 인터넷 이용률(%)	-	31.2% (2008)	-	-	-

*출처: UDAPE(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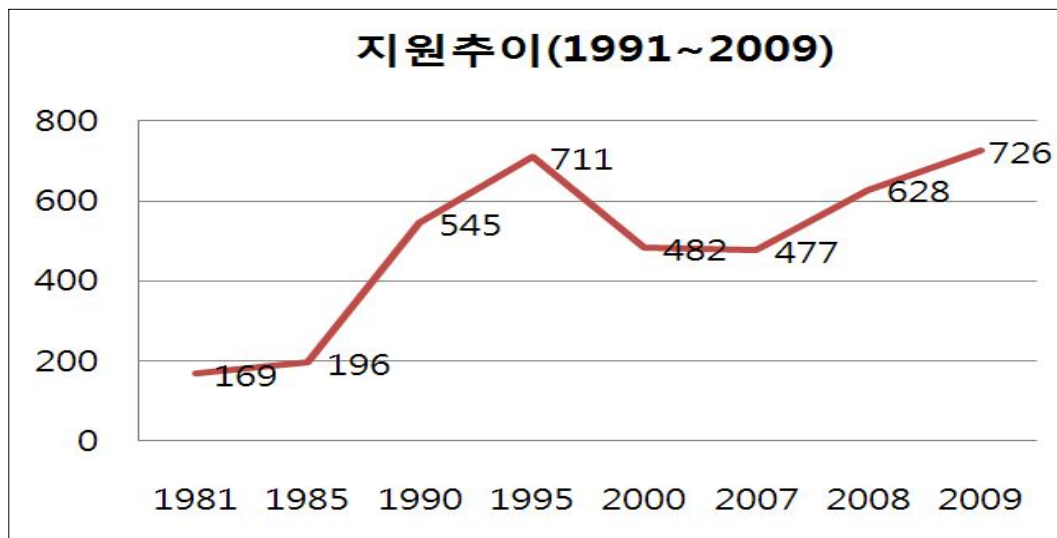
2 국제사회의 원조동향

1. 볼리비아의 수원 현황

- 중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 아이티, 니카라과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의 ODA를 지원받음.
- 2005년 에보 모랄레스 정권수립 이후, 정치적인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ODA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07년 이후 정권의 안정과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ODA 규모 확대

< 대 볼리비아의 ODA 지원동향 >

(순 ODA, 백만 달러)



*출처: OECD 통계/ World Bank

- 2007~2009년 평균 통계에 의하면, 다자기관의 원조보다는 양자 지원 비중증가
 - *양자 지원 비중: 2007년 27%⇒2008년 79%⇒2009년 66%
- 국민총소득(GNI) 중 ODA비중은 1990년 11.8%, 2004년 9.2% 수준에서 2007~2009년 평균, 4%대 유지
 - *2007년 3.8%⇒2008년 3.9%⇒2009년 4.4%

- 분야별로는 수자원, 에너지, 도로와 관련된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절반이상 차지

< 볼리비아 분야별 ODA 지원(2008) >

(2008년, %)

경제 인프라 (수자원, 에너지, 도로)	사회 인프라 (보건, 의료 등)	생산 분야 (농·임·어업 등)	환경, Budget support, 토지, 입법기관, 일반 행정 및 기타	합계
51	14	10	25	100

*출처: OECD, World Bank

- 주요 양자 공여국(19개국)은 미국,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등이며, 다자기관(14개)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EU기관, 안데스개발공사(CAF) 등이 주도적인 활동

- 공여기관의 분류

- ①특혜조건의 차관공여(WB, IDB, CAF)금융기관: 교육, 보건, 기초위생시설, 교통 등 12개 분야의 자금지원
- ②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UN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등 9개 UN기관
- ③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의 EU회원국과 유럽위원회: 농촌개발, 교육, 물과 위생, 거버넌스 지원
- ④미국, 일본, 캐나다 등 그 외 양자공여국: 대체개발, 대마약 정책지원 등
- ⑤NGO 등 비정부기관
- ⑥그 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7개국과의 기술협력 실시

- 벨기에(보건, 관개시설), 덴마크(출구전략), 유럽위원회(공식
부문의 직업창출, 마약생산 및 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 유역
정리), 프랑스(문화, 보건), 독일(물, 위생, 거버넌스, 농업),
이탈리아(보건, 물, 환경, 문화), 네덜란드(환경, 교육, 생산,
교육), 스페인(물, 거버넌스, 교육), 스위스(자원, 기후변화,
거버넌스, 교육, 연구), CAF(무역, 농촌개발, 교통, 재정)

< 주요 10대 공여국의 ODA 지원추이 >

(2008-2009 평균, 총액 USD m)

양자 공여국(천 달러)		다자기관(천 달러)	
미국	113	IDB**	75
스페인	98	EU기관	61
독일	50	IDA	29
네덜란드	43		
덴마크	35		
일본	35		
스웨덴	29		
합계	403	합계	165

*출처: OECD/DAC 통계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볼리비아 국가개발 계획(PND) 2006-2011의 목표에 따른 주요 공여 국의 지원 분야

- 품위 있는 볼리비아(Dignified Bolivia): 보건, 사회 분야, 교육/
직업교육, 법, 정의, 안전, 기초위생 등 MDGs 관련분야 중심
-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볼리비아(Democratic and sovereign
Bolivia): 일반 행정, 재정, 분권화, 다 부문
- 생산적인 볼리비아(Productive Bolivia): 농업, 환경, 자연자원,
수자원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분야 Matrix>

국가개발 계획(PND)	세부분야	미국	스페 인	독일	네덜 란드	덴마 크	일본	스웨 덴	IDB	CAF	WB
1. 품위 있는 볼리비아 (Dignified Bolivia)	교육/직업교육		o		o	o	o	o			
	자연재해/긴급구호	o	o				o		o	o	o
	노동개선**			o							
	젠더	o	o		o			o		o	
	원주민 계층	o	o			o			o		
	법, 정의	o	o	o		o		o	o		
	경찰**										
	보건과 사회 안전	o	o	o	o		o				o
	기초위생		o	o			o	o	o	o	o
	식량안보**								o		o
2. 민주적 이고 자주적인 볼리비아 (Democratic and sovereign Bolivia)	일반 행정	o	o	o	o	o		o	o		o
	재무부 지원**		o						o		
	분권화	o	o	o	o	o		o	o		o
	재정	o	o	o				o	o	o	o
	다 부문	o	o	o	o		o		o	o	
	입법부문**	o									
	시민사회/NGO**										
3. 생산적인 볼리비아 (Productive Bolivia)	농업	o	o	o	o		o	o	o		o
	무역과 수출**	o								o	o
	통신**										
	대안개발**	o									
	에너지**			o							
	석유와 가스				o					o	o
	산업		o								o
	환경, 자연자원	o	o	o		o		o	o		o
	광업**										
	수자원		o	o	o	o			o		o

*출처: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타 공여국의 지원이 비교적 적은 분야

2. 주요 공여국의 활동 및 협력 현황

□ 볼리비아 정부는 자원수출의 증가로 자체적인 재정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ODA**에 대한 의존도, 특히 전통 공여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

- 볼리비아 정부는 공여국의 중복지원을 피하고, 국가개발계획 **(PND)**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선호
- 한편, 공여기관들은 볼리비아의 국가개발계획을 실제 활용성 측면에서 회의적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선호

□ 프로그램 형 원조(Programme Based Approach: PBA)를 통한 접근 방식은 초기 단계로서, 공여기관 간 원조조화를 위한 체제 구축진행

*PBA비율: 40%(2007)

- 장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볼리비아의 정치혼란, 정치적 위험요인 및 불확실성으로 공여기관의 불안정적인 지원
- 현재까지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과 조달시스템 등 볼리비아 정부의 시스템 활용비율이 낮은 편이나 확대 추세
- 공여국기관은 분야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스켓 펀딩 **(Basket funding)** 등을 통해 공동사업 추진

<파리선언의 지표에 따른 상황>

파리선언 5대 원칙	지표내용	2005	2007	2010목표
1. 주인의식 (Ownership)	· 구체적인 국가개발 전략 유무, 재정 지출 및 예산과의 관련성 여부, 실제 활용 가능성	C	C	B or A
2. 원조일치 (Alignment)	· CPIA에 의한 공공 재정관리 시스템, 공공조달 시스템 등 활용가능성	3.5	3.5	4.0

3. 원조조화 (Harmonization)	· 공여국간 공동합의 및 공동절차 활용과 프로그램 원조(PBA) 접근비율	32%	40%	66%
4. 성과관리 (Managing for results)	· 국가개발전략과 분야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여부	C	C	B or A
5. 상호공동책임 (Mutual accountability)	·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합의된 사항의 이행여부를 공동으로 평가	Yes	No	Yes

*출처: DAC(2008)

□ 중점분야 5개 부분(보건, 교육, 물, 교통, 농업)에 대한 평가에서
교육, 물, 교통 분야는 바스켓 펀딩(**Basket Funding**)과 범분야적
접근법(**Sector Wide Approach: SWAp**) 등 **PBA**의 특성을 갖춘
접근형태가 적용되고 있으며, 원조조화를 위해 유효한 체제보유

○ 부분 섹터 별 공여국 간 원조조화의 사례(Basket Funding)

- 교육 분야 예산지원(Fondo de Apoyo al Sector de Educación: FASE): 볼리비아 교육부의 다년간 계획 지원,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의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문맹률 감소를 위한 과정, 교수의 역량강화, 학부모 참여확대, 인프라 강화, 교육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지원
- 물 분야지원(Grupo de Agua: GRAS)
- 반부패 프로그램(Programa Integral Anti-corrupción: PIA)
- 인권기구 지원(Ayuda Institucional al Defensor del Pueblo)
- 사법부(Ayuda Institucional al Ministerio de Justicia)지원

<중점 분야별 상황>

구분	보건	교육	물	교통	농업
명확한 섹터정책	Yes	Yes	Yes	Yes	Yes
중기재정 지출반영 여부	No	Yes	Yes	Yes	No

공여국간 통합된 조정과정	Yes	Yes	Yes	Yes	Yes
모니터링 시스템 실행	No	Yes	Yes	Yes	No
원조조화 여부	No	Yes	Yes	Yes	No

*OECD/DAC(2008)

□ 2006년 이래, 주요 공여국간 회의체 결성을 통해 원조조화 및 원조 효과 추구

○ 조정 테이블(Mesas de Coordinación)

- 볼리비아 정부 주도 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계획 관련 실행 논의
- 5개의 의제로 구성(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의 4가지 영역과 거시경제 및 원조조화 이슈 논의)

○ 볼리비아의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po de Socios para Desarrollo de Bolivia: GruS)

- 16개 양자 공여국과 7개 다자간 협력기구로 구성된 공식 회의체로서, 공여기관 간 협력과 조정추구

*독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 한국('11. 7. 21. 가입)/UN, OAS, IDB, WB, CAF, IMF, EU

- 유럽계 공여국 중심으로 구성, 현재까지 정보교류차원(부가 가치세 환급, 통관, 세금)에서 운영되며, 향후 동 협의체의 기능향상 필요
- 회원국 중 3개국이 6개월 주기로 Troika(삼두체제)를 구성하여 볼리비아 정부와 다른 회원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 공여국 간 중복사업을 피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하며, Co-financing등을 통한 협력방안 논의

*2011년 볼리비아 9개주 별 진행사업(119건): 라파즈 35개, 코차밤바 16개, 포토시 19개, 판도 5개, 베니 7개, 오루로 7개, चु키사카 13개, 산타크루즈 12개, 타리하 5개

- 회의체내 14개 소그룹을 구성하여 회원국별 부여된 섹터에서 활동

<소그룹별 회원국 구성(2011. 11월 기준)>

분야별 주제	회원국
1. 지표, 평가 등(파리선언 이행평가 포함)	· 스페인, 스위스
2. NGO와의 조정	· 캐나다
3. 공공문화(평화와 분쟁예방)	· 스위스, 독일(GIZ), UN-UNDP
4. 물, 위생	· 스페인, 세계은행
5. 교육	· UNFPA, 일본(JICA)
6. 보건의료	· 이탈리아
7. 통합 MESDI개발/마약	· UN-UNODC, OAS, EU
8. 성 주류화	· UN, 네덜란드
9. 공공행정 -9.1. 분권화 -9.2. 투명성과 거버넌스 -9.3. 사법정의	· OAS · UN-UNDP, 스페인, 독일(GIZ) · 독일(GIZ) · 덴마크
10. 거시경제	· 스웨덴, 유럽연합
11. 환경 -11.1. 산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 -11.2. 유역, 기후적응력 -11.3. 재난위험 감소	· 덴마크, EU · UN-FAO, USAID, 네덜란드 · 스위스, WB · WB, UN-UNDP, UN-PMA
12. 농업 및 생산 -12.1. 고용 및 생산성 -12.2. 식량안보 -12.3. 기술혁신 및 이전	· 덴마크 · EU, 스페인, 스위스 · UN-PMA, 농업토지개발부 · 덴마크, 스위스, WB

*GruS 웹페이지 참조

3. 향후 ODA 전망

-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와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전망
 - 최근 3년간 GNI 대비 ODA비중은 4%대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가개발의 중요한 역할담당
 - 볼리비아 정부는 비 GruS 회원국인 신흥공여국(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과의 협력확대 추구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통한 지원 확대
-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리비아의 경제,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향후 미시적인 차원에서 특정지역, 계층,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대두
 -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프로젝트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빈곤감소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줌.
- 프로그램형 원조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여국간 협력 확대 전망
 - 공여기관 별 프로그램형 접근형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SWAp과 바스켓 펀딩 등 **PBA** 방식의 원조 형태 확대
 - 공여국간 공동의 목표수립과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원조 조정의 틀이 구축되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GruS**는 정보교환의 창구로 역할하고 있으나, 향후 동 협의체의 기능향상 필요성 논의

II.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및 분석

1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

1.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의 구성 및 특성

- 국가개발계획(PND, 2006~2011)*과 볼리비아 정부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 경제·사회개발계획(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과 섹터별 프로그램, 정부·연도별 우선전략으로 구성

<국가개발전략의 구성>



*출처: 볼리비아 개발계획부(2008)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작성

*2012년 개발계획과 공공투자 방향의 지침에는 볼리비아 헌법과 정부 프로그램, 경제사회개발계획, 그 외 분야·지역별 계획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분야별 과제를 각 부처별 개별적인 과제가 아닌 분야별 연계성 (Intersectorialidad)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

-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 1기는 국가재건을 위한 헌법개정,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국유화, 에너지와 원자재 등 1차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혁신에 초점

- 볼리비아 정부 프로그램(2010-2015)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잔재를 없애고, ①신헌법 실현, ②모든 형태(공기업, 사기업, 조합 등)의 기업이 공영하는 복수경제에 기반을 둔 생산경제모델 확장, ③부의 재분배와 기회창출 확대, ④자주적인 국가결정에 따른 정책실현 추구

- 기존의 민주적인 볼리비아(Bolivia Democrática),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 품위 있는 볼리비아(Bolivia Digna), 독립적인 볼리비아(Bolivia Soberana)를 위한 정책 심화

- 특히, 집권 2기 국정운영에서는 1차 상품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혁신(산업화), 가계소득 증가, 취약계층 참여를 통한 빈곤 퇴치에 주력

- 볼리비아 국가개발 계획의 특징은 사회섹터와 원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조

- 볼리비아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에 우선한 공여국의 지원과 양자원조를 선호하며, 전통적인 원조 공여국에 대한 의존 감소를 위해 노력

- 국가주권에 대한 고려 하에 ODA의존에 대해 신중한 입장 견지

2. 2006-2011 볼리비아 국가 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 장기적인 목표 >

· 단합되고 위대하며 잘사는 볼리비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정한 4가지 영역을 강화함. (①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다민족 기반의 볼리비아: 정치정책, ②생산적인 볼리비아: 경제정책, ③품위 있는 볼리비아: 사회정책, ④독립적인 볼리비아: 대외정책)

□ 국가개발계획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대외정책 등 주요한 4가지 영역으로 구성

<국가개발계획(PND)의 기본정책 방향 및 세부목표 >

기본정책 방향	세부목표
1. 민주적인 볼리비아 (Bolivia Democrática)	① 정치, 경제, 사회적인 결정과정에서 참여 민주주의 강화 ② 원주민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의 권리 및 정치참여 확대 ③ 사회운동, 시민조직과 공동체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형성 ④ 제도적인 역량강화, 반부패 정책 강화
2. 생산적인 볼리비아 (Bolivia Productiva)	① 전략분야(천연가스, 광업, 전력에너지, 환경자원)에서 정부 역할 강화 ② 생산부문(농·목축업, 관광, 제조업, 주거)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건설(교통, 통신, 생산서비스) 분야에 투자유치 ③ 안정적인 직업창출 ④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성 증대 ⑤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했던 발전의 동력 변화(산업화, 경제 구조 혁신) ⑥ 부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한 경제정책 추진
3. 품위있는 볼리비아 (Bolivia Digna)	① 식민지 시대의 경제·사회구조와 연관된 지속적인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감소를 위한 부와 기회(직업) 창출 ②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③ 사회보장 프로그램(Bono Juancito Pinto, Renta Dignidad, Bono Juana Azurduy 등)과 문맹퇴치 프로그램 향상 ④ 식수 접근성 강화

4. 독립적인 볼리비아 (Bolivia Soberana)	① 국가주권과 정체성 강화 ②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생물 다양성 보호 ③ 해상진출로 확보 및 안정적인 수출시장인 칠레 등 중남미 국가 및 역내 통합체와의 국제적인 연대 강화 ④ 코카재배 지역의 부활과 코카의 전통성 및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
------------------------------------	--

*출처: PND2006-2011 & Programa de Gobierno MAS-IPSP(2011)

- 이처럼, 국가개발계획(2006-2011)에는 ①가계소득 증가 ②안정적인 직업창출을 통한 불평등 감소와 소외계층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며, 그 외 성 평등, 환경을 범 주류화 이슈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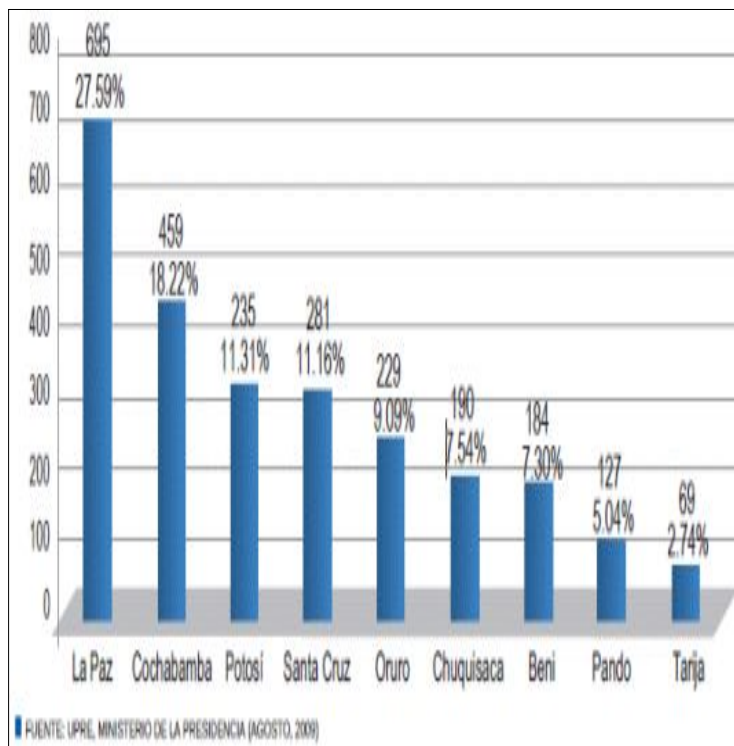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구분	항 목	2011	2012
거시경제 지표 (예측)	· GDP(%)	3.7%	3.7%
	· 인플레이션(%)	5.2%	5.2%
	· 경상계정수지(GDP의 %)	1.3%	1.5%
	· 공공재정(GDP의 %)	-1.0%	-0.6%
구분	항 목	2005	2011
Bolivia Digna (품위있는 볼리비아)	· 빈곤율(%)	58.9%	49.7%
	· 절대빈곤율(%)	35.3%	27.2%
	· 1인당 GDP 성장률	1.84%	4.31%
	· 지니지수	0.59%	0.58%
	·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의 차이	25배	21배

구분	항 목	2006	2006-2010
기타 사회지표	· 15세 이상 문맹인구(%)	750,000명(13.6%)	0%
	· 식수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	2.3(백만명)	1.92(백만명) 가능
	· 위생시설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인구	5(백만명)	2(백만명) 가능
	· 도시지역 전기 공급이 가능한 주거	1.18(백만, 가구)	460(천) 가구 혜택(85%⇒95%)
	· 농촌지역 전기 공급	243(천, 가구)	210(천) 가구 혜택(30%⇒50%)
	· 천연가스 시설	LPG사용	천연가스 사용 가구 확대: 160(천, 가구)
	· 주거	양적인 측면에서 298천 가구 부족	100(천, 가구) 건설 예정

*출처: Plan Nacional de Desarrollo(2006)

<볼리비아 정부의 프로젝트(Bolivia Cambia, Evo Cuple)** 우선지역(2009)>



지역(주)	프로젝트
베니(Veni)	184
포토시(Potosi)	235
판도(Pando)	127
산타크루즈(Santa Cruz)	281
코차밤바(Cochabamba)	459
라파스(La Paz)	695
추키사카(Chuquisaca)	190
타리하(Tarija)	69
오루로(Oruro)	229

*출처: Programa de Gobierno MAS-IPSP(2011)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아동, 젊은이, 여성, 원주민 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일종

2 종합분석

- 볼리비아는 정치·경제·사회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개발계획(PND, 2006-2011)을 통해 지난 5년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옴.
 - 국가개발계획의 4가지 영역에서(Dignified Bolivia, Productive Bolivia, Democratic Bolivia, Sovereign Bolivia) 그 개선 정도가 상이함.
 - 무역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증대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성장과 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
 - 향후 이러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 생산성 증대, 직업창출과 함께 소득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정책의 강화 필요
 - 문맹퇴치 프로그램인 “Yo si puedo”를 통해 괄목한 개선을 이루었으며, 보건 분야에서 병원과 의료인력 수 증가 등 보건 서비스 접근성이 대체로 향상
 - 국익의 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토대로 광업, 천연가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국유화 정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정책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역할
- *Bono Juancito Pinto & La Renta Dignidad 등 사회정책 실시
- 현 정부의 원주민 중심 개혁에 대해 기존 기득권 및 중산층 반발 등 지역,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다양한 사회 계층 간 합의를 통해 안정된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Ⅲ. 한국의 볼리비아 지원현황

1 지원현황 및 특성

1. 지원현황

- **(총괄)** 1991년부터 2010년 동안 약 **7천만불** 지원
 - 이중 유상은 6천4백만불(승인기준), 무상은 약 600백만불 지원(잠정)
- **(지원규모)** **2007년** 이후 지원규모 확대
 - 무상은 1991년부터 2010년간 총 **600만불** 지원(잠정)
 - 프로젝트 5건, 물자지원 15건, 긴급구호 2건, 국내초청연수 89명, 전문가 파견 9명, 봉사단 파견 16명, 민간단체 지원 8건
 - 유상은 2010년까지 **6천4백만불** 지원(승인액 기준)
 - 파일라스 교량(2천3백만불)과 바네가스 교량건설사업(4천백만불)지원

< 한국의 대 볼리비아 연도별 지원추이 >

(단위: 천불)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원 규모	206	156	142	132	266	388	135	150	71	131
연도	2001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 규모	520	201	100	46	130	146	1,096	738	208	1,000 (잠정)

*출처: ODA Korea

□ **(중점분야)** 수출입은행의 교통 분야(교량건설 프로젝트) 외 보건의료(병원건립), 농촌개발 사업(농업용수, 댐, 상수도 시설) 지원

□ **(사업형태)** 프로젝트, 물자지원, 국내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봉사단, 민간단체지원, 긴급구호 지원

<한국의 대 볼리비아 사업 형태별 지원추이(1991-2010)>

(단위: 건)

구분	프로젝트	물자지원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봉사단	NGO	긴급구호
무상	5	15	89	9	16	8	2
유상	1	-	-	-	-	-	-
총 지원 (건 수)	6	15	89	9	16	8	2

*출처: ODA Korea와 KOICA 통계사이트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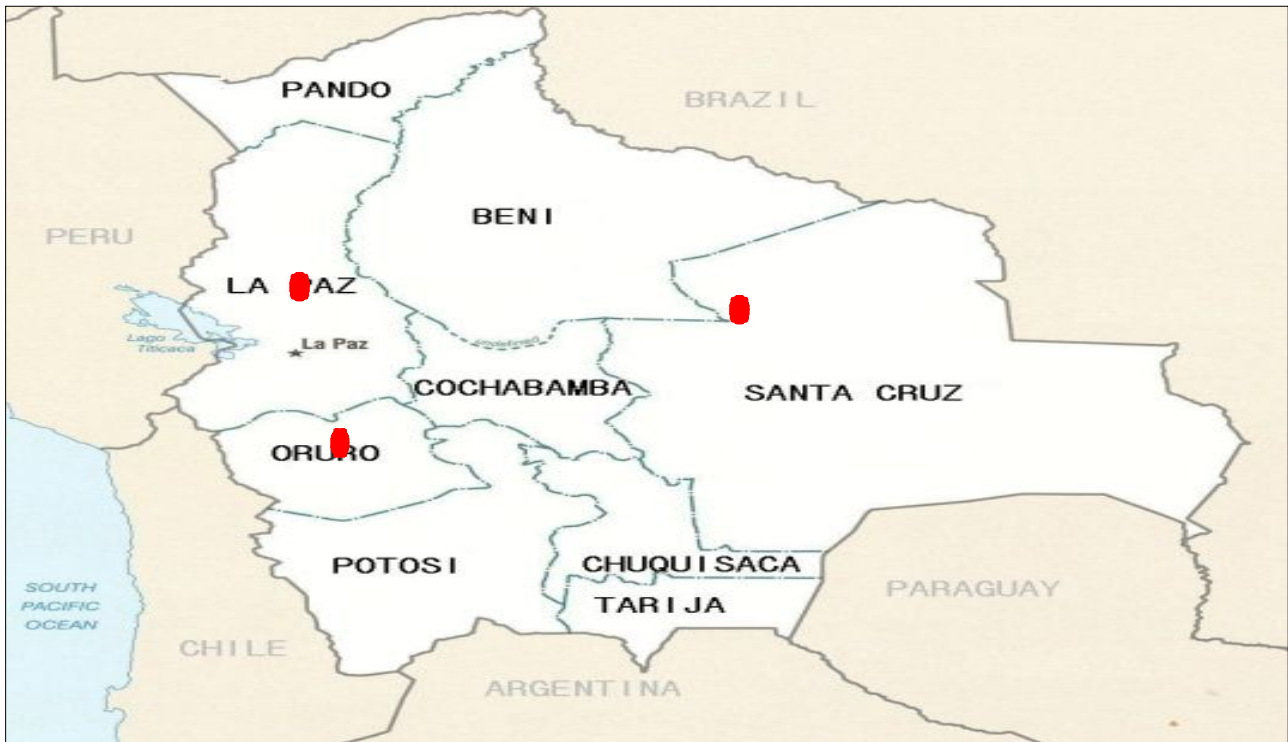
**본 통계에는 2010년 중장기자문단 파견실적 2명(중장기개발전략, 국가R&D) 포함

□ **(최근진행 사업)** 무·유상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확대 예정

- 무상의 경우, 2011년 신규프로젝트 2건과 48명 규모의 국내초청연수실시
- 유상의 경우, 2010년~2014년 2.5억불 한도 내에서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 사업에 차관제공 예정
- 2011년 지식공유사업(KSP)의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으며, KSP사업 중 1개 분야*지원

*지원분야: 중기재정 안정화 정책

<KOICA와 EDCF의 사업진행 지역 및 내용(1991-2010)>



시행기관	지역	프로젝트 내용(사업기간)
KOICA	라파즈(엘알토)	의료센터 건립사업('95-'96)
"	라파즈(엘알토)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00-'02)
"	라파즈(엘알토)	모자보건서비스 개선사업('06-'08)
"	산타크루즈(파일론)	상수도시설 구축사업('10-'12)
"	오루로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10-'16)
EDCF	산타크루즈(파일론)	Rio Grande 강 고속도로 교량건설 사업('01-'09)
"	산타크루즈	바네가스 교량건설 사업(2009)

*출처: ODA Korea

2 지원에 대한 평가

① 지원전략에 대한 평가

- (작성체계) 2009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및 수출입은행 등 실시기관의 현지 사무소가 부재했으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방향 결여
 -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을 토대로 사업추진, 관계 부처와 기관의 참여 저조
- (내용) 통합적인 지원전략 없이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과 국가개발계획 혹은 분야별 계획과 일치하는 경우,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
 - 향후 유·무상 공동 정책협의회를 실시하며, 정부간협정(Framework Arrangement)을 토대로 다년간 후보사업 리스트 공유 필요
 - 실질적인 ODA 지침기능을 강화하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수립 필요

②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 (효과성) 국가개발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 빈곤퇴치,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확대, 기초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는 등 개별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다만, 타 공여국과의 협력이 부족했으며, 단기성 프로젝트 위주로 이루어져 중장기 원조효과 제고 미흡과 사업과 프로그램 간 연계성 부족

- **(지속가능성)** 사업종료 이후에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③ 현지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 **(현지인력)** 중점협력국으로서 향후 ODA규모가 증가할 예정임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사업발굴과 실행을 위해 인력확대 불가피
- **(원조조화)** 한국은 볼리비아 내 23개 양자·다자간 협력기구와 볼리비아 개발계획부가 참여하는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S)'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원조동향 파악과 정보 교환 및 향후 원조조화를 위한 협력방안 강구필요

④ 교훈

- 볼리비아의 개발과제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을 발굴,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계된 후속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사례 확산
- 인력강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프로그램 간 통합적인 연계도모와 자립운영 기반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 볼리비아 연방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 구축 필요
- 특정지역, 계층, 분야에 따라 개발의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향후 미시적인 차원에서 특화된 지원수립 필요

<한국의 대 볼리비아 ODA SWOT분석>

한국의 환경	Strength	Weakness
	□ OECD/DAC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원조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진행 □ 개도국으로서 직접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로서 볼리비아의 개발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 한국의 중점 협력국으로서 중기에 산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수립 하에 지원 가능 □ 한국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ODA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으로써 원조효과에 기여 가능 □ 한국은 볼리비아 원조공여국 협의체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2011.7.21.)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 조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지리적인 원거리, 상이한 언어(스페인어, 36개의 원주민 언어 등), 문화적인 차이에서 지원에 있어서 이들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최근 재외공관 재개설(2008년) 등 비교적 짧은 양국 간 정치·외교관계 - 양국 간 정책협의를 위한 채널 활성화 필요 □ 짧은 원조경험, 원조실행기관인 KOICA와 EDCF의 물적·인적 기반 부족 - 2010~2011년 각 기관별 사무소 개설 - 현지사무소 인력부족 등 기초인프라 강화 필요 □ 소액지원, 단기적 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중장기 원조효과에 대한 제고 필요 □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강화 필요 □ 성과관리 중심의 원조사업 추진 필요 □ 볼리비아에 대한 원조역사가 길고 경험이 풍부한 스페인, 일본, 독일 등의 비교우위(교육, 물, 환경)와 한국의 비교 우위분야 간 높은 중복가능성

볼리비아의 환경

- 풍부한 천연자원, 광물자원, 젊은 계층의 인구구조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높은 성장가능성 보유
- 한국의 경제발전과 잠재력에 대한 높은 관심
-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계획간 비교적 높은 연계성
- 원조공여국 협의체 기능향상이 필요하나, 원조동향 파악, 정보 교환 등 타 공여기관과의 원조조화를 위한 유효한 체제 보유
- 분야별 바스켓 펀딩 등 공여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 가능

- 현 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역, 계층간 갈등과 정치 불안 발생
- 현 정권 이후 정책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정치적 위험성과 불확실성으로 공여기관의 불안정적 지원
- DAC 공여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공여국의 지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 견지
- 사회계층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체제와 역량 미비
- 행정기관의 역량과 효율화 미비
- 공공 재정관리 시스템, 조달시스템 등 볼리비아 정부의 자체 시스템에 대한 공여기관의 낮은 활용비율
- 원조공여국 협의체의 실질적인 기능향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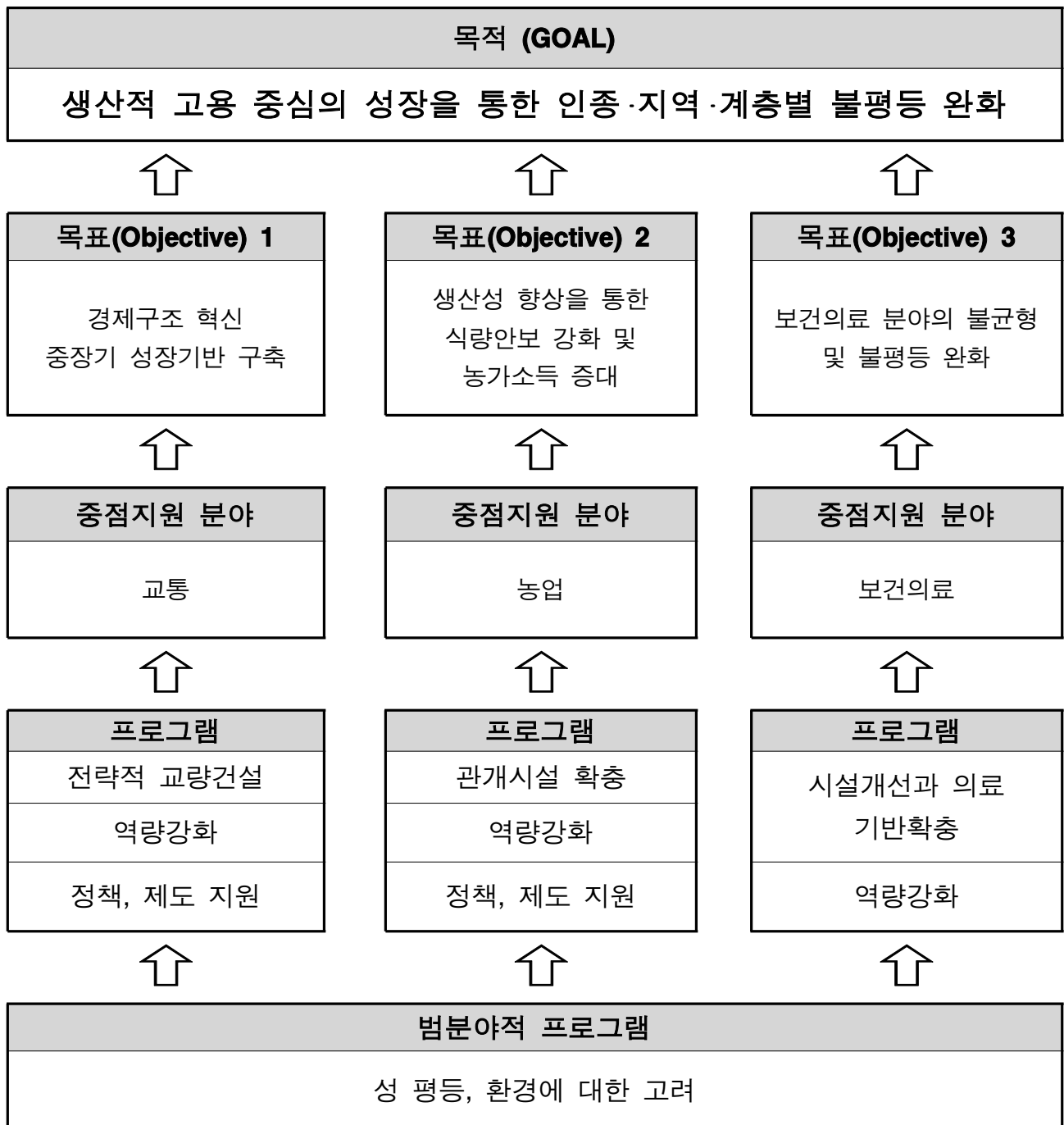
Opportunity

Threat

IV. 한국의 볼리비아 협력전략

1 볼리비아 협력의 기본방향

□ 한국의 대 볼리비아 협력 프로그램(요약)



- **(목표)**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종·지역·계층별 불평등 완화
 - 한국의 중점협력국으로서 장기적으로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전환과정 지원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계획 수립 하, 3대 분야(교통, 농업, 보건의료)에 집중

*볼리비아의 국가개발전략(2006-2011)과 정부프로그램(2010-2015)의 기간과 종료 시점 고려

- **(정책특성)** 개별적인 **MDGs** 과제를 지원하기 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 (**holistic approach**)에서 접근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 생산성 증대, 직업창출 등 생산시스템과 거시경제정책과 연계된 부문에 지원
 -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구조의 전환과정 지원
 - 산업화 과정과 산업화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여 분야선정

- **(필요성)** 정치·외교·개발협력 및 전략적 측면 고려
 - 정치·외교·개발협력 측면 ⇒ OECD/DAC 회원국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역량강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추구를 통한 한국의 국격 제고, 정치·외교적인 지지기반 조성
 - 전략적 측면 ⇒ 풍부한 자원, 에너지, 구조개혁에 따른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신흥경제권으로 부상,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호혜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중점분야)** 재원의 **70%이상**을 집중지원
 - ① **교통 분야** ⇒ 경제구조 혁신,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 ② **농업 분야** ⇒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③ **보건의료 분야** ⇒ 보건의료 분야의 불균형 및 불평등 완화

- (중점분야 선정 원칙) 볼리비아의 국가·분야 별 개발 전략, 양국 간 정책협약, 현재 진행사업, 한국의 비교우위, 타 공여국과의 협력가능성(원조조화), 개발제약 요인과 특성에 대한 고려
- (중점지역 선정 원칙) 인구, 원주민 비율, 1인당 국민소득, 빈곤율, 인간개발지수(HDI), MDGs 달성정도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 볼리비아 정부의 프로젝트 우선 지역, 한국공관, KOICA 및 EDCF사무소 위치(사업관리 측면), 기존 진행사업과의 조화, 지역별 특성 고려

<한국의 중점지역 고려항목>

지역(주)	인구 (2009)	원주민 비율*** (2001)	1인당 국민소득 (달러, 2009)	HDI (2007)	빈곤 비율*** (2001)	정부의 우선 지역* (순위)	타 공여국 프로젝트 건수(순위)**
베니(Veni)	437,636	32.8	1,049	0.671	76.1	7	6
포토시 (Potosí)	784,265	83.9	1,352	0.575	79.7	4	2
판도 (Pando)	78,250	16.2	2,000	0.702	72.5	8	8
산타크루즈 (Santa Cruz)	2,706,465	37.5	1,693	0.716	38.1	3	5
코차밤바 (Cochabamb)	1,824,082	74.4	1,389	0.662	54.9	2	3
라파스 (La Paz)	2,798,653	77.5	1,451	0.682	66.3	1	1
추키사카 (Chuquisa)	640,768	65.6	1,196	0.611	70.1	6	4
타리하 (Tarija)	509,708	19.7	3,353	0.742	50.8	9	8
오루로 (Oruro)	447,468	73.9	1,489	0.678	67.8	5	6
볼리비아 전체	10,227,299	62.0	1,619	0.729	58.6	-	-

*Bolivia Cambia, Evo Cuple 프로젝트의 우선지역에 따른 순위

**GruS 공여국의 프로젝트 건수에 의한 순위

***원주민 비율과 지역별 빈곤비율은 2001년 볼리비아 정부에서 실시한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중점지역)

- 교통: 산타크루즈, 베니, 판도 등 주변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활로,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진출가능 지역,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계획의 우선지역
- 농업: 추키사카 등 높은 원주민과 극빈층 비율, 가족단위 중소규모 농업기반지역으로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가 필요한 지역
- 보건의료: 지역의 인구, 원주민 비율, 빈곤율을 고려하되, 그 외 낮은 인구 밀도와 주민의 산재된 거주 형태로 기초사회시설에 대해 접근성이 낮은 판도와 베니 등 고려

□ (실행전략)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 수립,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원조일치 및 원조조화의 원칙추구

-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강화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전략 수립
-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 분야별 중점사업 선정과 역량집중
- 사업종료 후 자립운영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
- 볼리비아 정부의 중점정책과 연계하여 원조일치 적용
- 기존 공여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원조조화 원칙추구, 공동 협력사업 확대, 역내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활성화
- 삼각협력 등 새로운 지원형태를 발굴하여 원조효과 제고
- 미시적인 차원에서 지역·계층·분야에 따른 특화된 지원전략 수립
- 지역·분야·원조수단의 단계적인 추진을 토대로 파급효과 확산

□ (전략기반) MDGs 달성, 파리선언, DAC권고사항 등 국제규범 및 ODA선진화 방안 준수

<한국의 지원 분야와 볼리비아의 계획>

한국의 중점분야	볼리비아의 상위계획	원조일치 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전략/분야별 정책	관련부서	주요 공여국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을 통한 인종, 지역, 계층별 불평등 완화	·국가개발계획(PND) ·정 부 프 로 그 램 2010-2015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 Desarrollo (개발계획부)	·빈곤감소, 소득불평등 완화 ·장기적인 지원원칙 ·ODA 및 민간 투자 확대 추세
1. 교통 ·사회통합과 경제 구조 혁신 및 중 장기 성장기반 구축	·생산적인 볼리비아 (Bolivia Productiva)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증대 -경제구조 혁신	·Red Vial Fundamental (주요도로건설계획)	·Administradora Boliviana de Carreteras (국도관리청)	·안데스개발 공사(CAF), EU, IDB, JICA
2. 농업 ·식량안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 직업창출 ·MDGs 분야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아닌 생산 시스템과 거시경제 정책 과의 연관성 고려 ·생산적 고용 중심의 성장 지원	·생산적인 볼리비아 (Bolivia Productiva) -생산부문(농·목축업 관광, 제조업, 주거) 과 생산을 위한 인 프라 건설(교통, 통신, 생산서비스) -안정적인 직업창출 -내수와 수출을 위한 생산증대 -경제구조 혁신 (산업화)	·Plan del Sector Desarrollo Agropecuario(농업 개발계획) <Revolución Rural y Agraria 2010-2020> ·Plan Nacional de Desarrollo del Riego 2007-2030 (관개시스템발전계획)	·Ministerio de Desarrollo Rural y Tierras (농업과 토지 개발부)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y Agua (환경 및 수 자원부) ·Viceministro de Desarrollo Rural y Agropecuario (농업개발청) ·Viceministro de Recursos Hídricos y	·독일, WB, 덴마크, 스 페인, 네덜 란드, EU, 스위스, JICA

			Riego (수자원 및 관개 시스템 청)	
3. 보건 · 보건, 의료 분 야의 불균 형과 불평등 완화 · 지역, 인종, 계층 분석에 따른 지원	· 품위 있는 볼리비아 (Bolivia Digna) - 지속적인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감소를 위한 부와 기회(직업) 창출 -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 사회보장 프로그램 지원 - 식수 접근성 강화	· Plan Sectorial de Desarrollo 2010-2020 (보건 분야 발전계획)	· 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보건체육부) · SEDES(보건 서비스 부서) · 시정부 및 관련부서	· 판아메리카 보건기구 (P A H O), WHO, 이탈 리아, 그 외 신흥 공여국

*출처: 필자작성

2 협력분야

1. 사회통합과 경제구조 혁신 및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 ⇒ 교통 분야

① 검토배경

- (볼리비아의 개발수요) 사회통합을 위한 지리적인 소통체계와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구축
 - 경제·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지역통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
 - 산업구조 다양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의 제도 정비
 - 수출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 경제성장을 위한 교량과 도로 등 인프라 확충
-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화 과정에서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도로교통망을 확충했던 경험과 기술력 보유
 - 최근 첨단 IT 시스템을 활용한 교량, 도로시스템 개발과 도입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교량과 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통합, 지역 간 격차 해소, 수출시장 확보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

- (볼리비아의 계획)
 - 5개의 주요 대륙횡단도로 건설과 지역통합을 위한 도로와 전략적인 교량건설

- 남미 태평양-대서양 횡단 도로의 연장 노선연결을 통해 유럽, 브라질, 페루, 칠레 등 주변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활로 모색
- 내륙국가로서 해양진출을 위한 태평양-대서양 노선 모색
- 교통 혼잡해소를 통한 운송시간과 비용절감

○ (한국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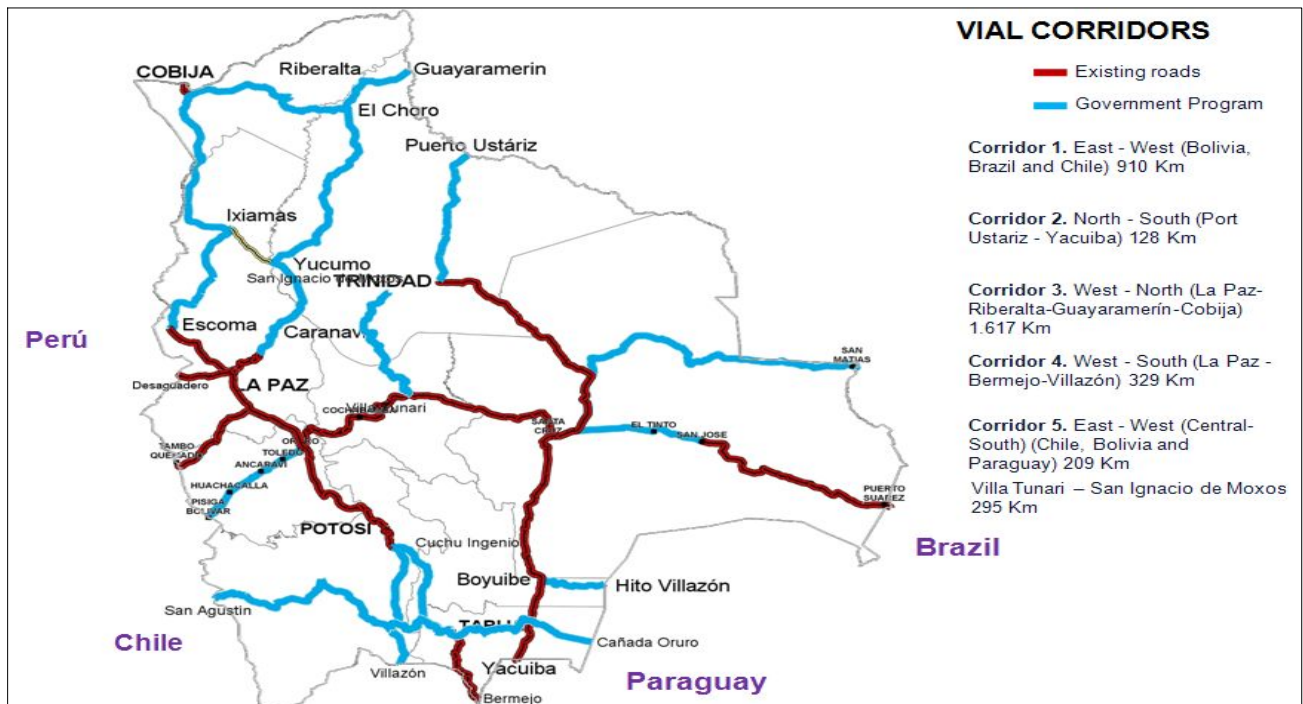
- 총 16,054.35 Km의 주요 도로 건설계획(Red Vial Fundamental)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적인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
- 바네가스 교량건설을 통해 **볼리비아 동서**(산타크루즈, 코차밤바, 오루로, 라파즈와 브라질, 페루, 칠레 구간) 연결을 위한 도로건설 프로젝트(2,585 km)에 기여
- 마모레, 마드레 데 디오스, 베니교량 건설을 통해 **볼리비아 서북** 간 연결과 아마존 수역을 통한 대서양 진출을 위해 도로건설 프로젝트(2,962Km)에 기여
- 국도개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무역활성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운송망 형성에 기여

<국도관리청(ABC)의 주요교량 프로젝트>

분 야	프로젝트	지 역	규 모
국도관리청 (ABC)교량	Río Madre Dios*	베니-판도 주	574m
	Sobre Río Beni*	베니	480m
	Mamore*	베니	1.700m
	Masicuri	산타크루즈	300m
	Bañegas*	산타크루즈	1,400m
	Korijahuira	라파스	45m
	San Buenaventura	라파스-베니	374m
	Huaylla Chuchu	포토시	50m
	Arze-Aiquile- La alizada	코차밤바-산타크루즈	53m

*EDCF사업

<볼리비아 정부의 도로통합계획>



③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기반시설 구축과 개발조사(타당성 조사, 연구, 설계) 및 역량 강화지원을 통해 사업의 연계성 도모와 실시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제고

(2) 실행계획

- (사업형태별 추진방향) 교량건설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와 연구 및 관련분야의 역량강화 추진

① 기반시설 확충

- 볼리비아 정부의 개발수요와 프로젝트 진행 우선지역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갈등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통합 효과제고,

- 수출증대와 경제적인 파급력이 큰 산타크루즈 지원
- 석유자원이 풍부하고 미 개발지역이며, 현 정부에 의해 개발 우선 지역으로 고려되고 있는 아마존의 베니와 판도 지원
- 기존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북쪽과 중심지역 간 지역통합 효과

② 개발조사

- 향후 진행될 사업에 대한 타당성(F/S) 조사, 기술적인 지원과 연구조사 분야 지원(도로와 교량 개보수 실시, 교통망 기획 및 디자인,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③ 역량강화

-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와 개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와 사업성 검토를 위한 연수강화
 - 시설운용과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초청연수와 전문가 파견 등 관련분야의 인력 역량강화
- **(재원확충)** 향후 국내 민간자본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재원 보충, 지원규모 확대 고려
- 민간자본 유치 검토
 - 미주개발은행(IDB) 신탁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모색
- **(원조조화)**
- 안데스개발공사(CAF), 미주개발은행(IDB), 유럽연합(EU), 일본 국제협력단(JICA) 등 주요 공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S**)에 참여하여 원조 동향 파악과 정보교환

2.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량안보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업분야

① 검토배경

- **(볼리비아의 개발수요)** 국가개발계획의 핵심프로젝트*이며, 농업, 물, 기초위생, 기후변화 대응측면 등 종합적인 이슈로 고려
 - 빈곤층의 대다수가 농촌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빈곤퇴치를 위한 과제로서 농촌개발 중시
 - 농업생산력 증대는 고용창출과 주민의 생활수준향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고려

*전체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며, 현 정부는 농업분야를 식량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로 고려

**볼리비아 농업은 ①감자, 쌀, 옥수수, 밀 등의 전통적 농업(25%), ②사탕수수, 면화, 콩, 설탕, 커피 등 수출을 위한 상업농업(67%), ③코카생산(8%)으로 분류, 최근 상업농업 확대추세

-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관개 시설 확충에 투자 강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남미국가 중 파라과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영양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분류

- 생산력 향상, 산업화를 통한 생산시스템 변화, 가족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규모 농업기반 강화
- 식량안보 측면에서 주민의 식량 접근성 향상과 빈곤퇴치 기여
- 상업 농업분야의 생산품 다변화, 기계화, 기술개선
- 계절성 강우조절 능력 미비, 관개시설확충*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필요

*농업생산이 가능한 토지는 전체면적(1,084 Km²)의 34%에 해당하나, 이중 관개 시설이 갖추어진 면적은 2010년 기준 3.9%에 불과

-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한 관개 시설 정비시급
- 관개시설 확충을 통해 수자원 확보와 지상과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가능

<지역별 관개시설 현황>

지역	작은 규모	중간 규모	큰 규모	Total (개수)	비율 (%)	저수용량 (m3)	유역 면적 (Km2)
추키사카	10	13	7	30	11	17.410.500	770,16
코차밤바	82	9	24	115	40	323.584.300	2.636,75
라 파즈	15	0	15	30	10	78.371.500	582,15
오루로	8	0	1	9	3	34.669.000	2.188,80
포토시	64	15	6	85	30	54.211.500	1.211,58
산타크루즈	5	0	4	9	3	27.844.000	615,46
타리하	0	1	8	9	3	60.032.500	27,50
Total	184	38	65	287	100	596.123.300	8.032,40

*출처: Ministro de Medio Ambiente y Agua(2010)

- **(한국의 비교우위)** 농업분야의 생산성 향상, 농촌지역의 빈곤 극복 등 농촌개발과 발전에 대한 성과 및 경험보유
 - 타 지원 국가에서 관련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실시 경험
 - 관개시설과 농업 분야의 전문 기술인력 보유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관개시설 확충 등 농업용수 접근성 강화를 토대로 농업생산성 향상,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육성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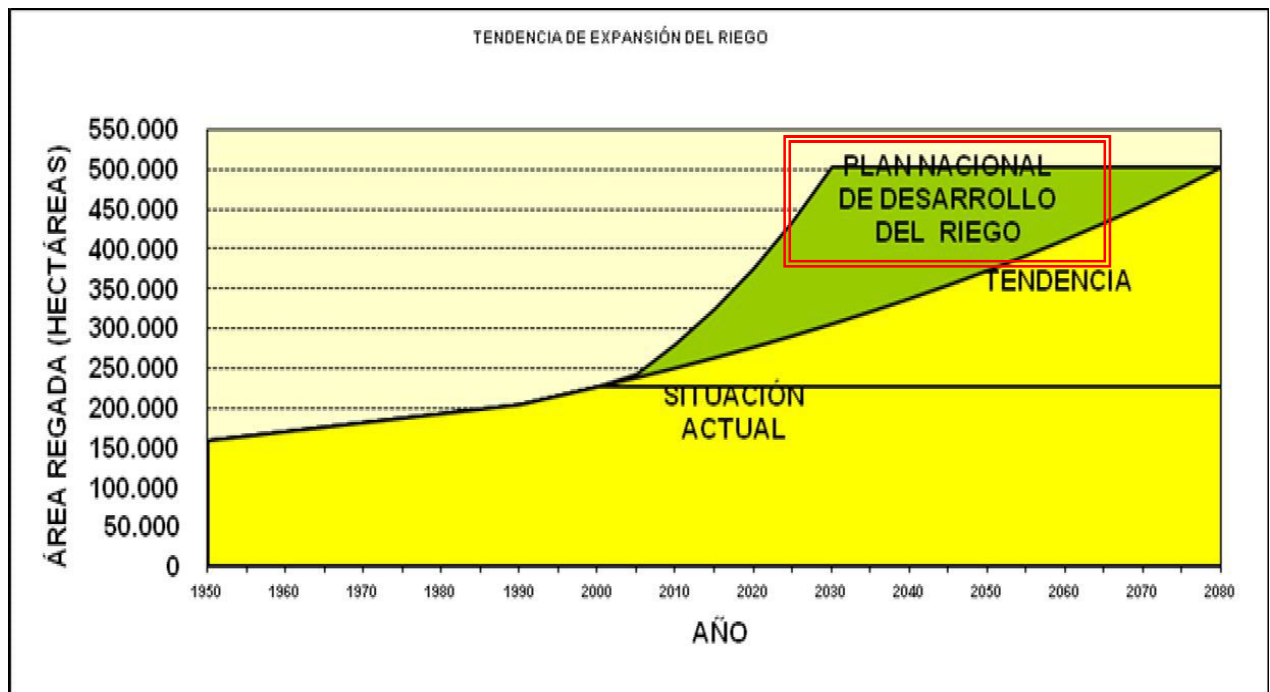
- **(볼리비아의 계획)** 농업 분야의 총체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농업과 토지개발부, 환경 및 수자원 부 등 여러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
 - 소득과 직업창출을 위해 수출상품 다변화와 관련 기술발전
 - 관개시설 구축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물 접근성 강화

- 2015년까지 관개시설 정비 하, 40,000ha 확대를 통해 3만 가구의 농민에게 혜택부여
- 2030년까지 12억불의 재원투자 예정, 27만5천ha의 확대를 통해 20만 명의 농민에게 혜택 부여
- 관개시설개발계획(2007~2030)에 따라 관련 시설구축과 기술 강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부문의 연구기능 활성화
- 중소농민의 기계화와 교육(부적절한 화학약품 사용* 근절 등) 지원

*토양오염과 사막화 현상으로 연간 40,000ha 토지 생산성 상실

- 관개시스템 국립학교(Escuela Nacional de Riego)의 기능향상

<관개시설 확대계획>



*출처: PRONAR(Programa Nacional de Riego, 관개시스템 국가 프로그램)

**향후 증감계획은 녹색으로 표시

- 농업개발계획(Plan del Sector Desarrollo Agropecuario)에 의하면, 식량안보 취약성 비율을 10%이하로 낮춤.
- 안데스 농작물의 가치제고와 식량안보를 위한 산업화 및 상업화 촉진

○ (한국의 기여)

- 농업용수 효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와 식량안보에 기여
-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관련, 전문 인력 양성(기계화, 선진 영농기술과 우량품종 보급, 도정시설, 저장, 처리 등 수확 후 기술개발 등)을 통해 농촌개발과 중소농민의 소득창출에 기여
- 수출농업 생산품의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곤 퇴치에 기여

<볼리비아 분야별 계획 중 한국의 지원 분야: 주요 성과지표와 달성목표>

한국의 지원 분야	목표	2010-2015	프로그램	예산 (2010-2015, 약정금액)
①식량안보를 위한 농업 발전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의 생산성 강화	·관개시설에 기반한 3,129 ha 토지 확대	Criar-PASA	49.747.775 (12.389.281)
		·28,408 가구의 식량안보 취약성 강화		
②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 접근성 강화	·관개시설 인프라 건설 -관개시설 하 농작물 생산 증대	·관개시설 하 2,770 ha 증대 ·1,641 가구 혜택	공공투자 프로젝트 (SIRIC I & II)	29.679.349
		·2,250 가구 교육	Escuela Nacional de Riego (국립관개수로 학교) 지원	4.095.100
③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정부기관 역량강화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농업개발 계획에 지원	·종합적 기술협력	Investigación e Innovación Agropecuaria (연구, 기술혁신)	64.034.228 (40.884.700)
		·농업 부분의 지도자 양성		

*출처: Plan del Sector Desarrollo Agropecuario(2010)

③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기반시설 구축과 역량강화 및 개발조사(타당성조사, 연구, 설계)를 통해 사업의 연계성 도모와 실시기관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제고

(2) 실행계획

- (사업형태별 추진방향) 기반시설 구축과 인력강화를 중심으로 지원 하되, 정책 및 제도 지원 고려

① 기반시설 확충

- 토양침식으로 토지 생산성이 낮고 관개시설이 미비한 추키사카 등 지원
- 특히, 외곽지역으로 인구가 산재되어 거주하며 식량안보 강화가 필요한 가족단위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

② 역량강화

- 농업과 토지개발 부의 국립관개수로 학교(Escuela Nacional de Riego)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련분야 교육 및 인력양성
- 관개개발과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전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수자원 인프라 개발 및 관리 등)
- 상업농업과 관련한 전문가 파견 등 현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주요 식량 작물의 영농기술 보급, 우량품종 보급, 수확 후 기술 개발, 농산물 가공, 농업기계화 등)
- 농업 및 산림 분야 기술혁신원(el Insituto de Innovación Agropecuaria Nacional y Forestal: INIAF) 등 현지기관과의 프로

그럼 정례화를 통해 공동사업 발굴과 인력교류 확대

- 농업연구와 기술혁신 프로그램(Investigación e Innovación Agropecuaria) 및 기술협력정책(la Política Nacional de Asistencia Técnica)과 연계한 역량강화 추진

③ 정책 및 제도 지원

- 농업연구, 기술혁신 프로그램(Investigación e Innovación Agropecuaria) 지원을 통한 연구기능(R&D) 강화
- 식량안보와 직업창출 프로그램의 수립지원
- 관개수로 설립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농업기술 보급 체제 정비, 정책수립, 생산기반 정비 등

○ (재원확충) 국내기업 참여유도를 통한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지원

- 향후 볼리비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방안 고려

○ (원조조화)

- 독일, 세계은행(WB),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유럽연합(EU)과 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 주요 공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S**)에 참여를 통한 원조동향 파악 및 정보교환

*GruS내 본 분야의 담당기관: 덴마크, 유럽연합, 스페인, 유엔 FAO, 독일

3. 보건의료 분야의 불평등 및 불균형 완화 ⇒ 보건의료분야

① 검토배경

- **(볼리비아의 개발수요)** 전반적인 MDGs 지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촌)과 계층(특히 여성, 원주민,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별 불평등과 불균형 발생
 - 국가개발계획과 보건 체육부의 보건 분야 발전계획 **2010-2020**에 따라 사회적 소외와 보건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빈곤 퇴치와 불평등 개선
 - 경제적 이유(저소득), 다민족·다문화적 요소(민간요법 활용 선호), 지리적인 요인(넓은 국토와 원주민의 산재된 거주형태)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높은 모자사망률 기록
 - 아동과 모성 사망비 감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빈곤감소와 사망의 원인**(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가족계획 기피, 임신중절 금지로 인한 불법 시술만연, 성에 대한 조기노출로 청소년 임신, 산전 관리 미흡 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접근
 -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율,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영양 및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지역별 의료시설 현황>

지 역(주)	보건소 (1차 병원)	보건센터 (1차 병원)	기본병원 (2차 병원)	일반병원 (3차 병원)	전문병원	Total
베니(Veni)	95	69	8	0	0	166
추키사카(Chuquisa)	180	194	5	1	4	372
코차밤바 (Cochabamba)	216	180	15	3	2	410
라파스(La Paz)	296	263	19	1	8	581
오루로(Oruro)	103	63	4	1	0	171
판도(Pando)	39	19	2	0	0	60

포토시(Potosi)	330	145	4	1	0	476
산타크루즈 (Santa Cruz)	205	170	25	2	6	391
타리하(Tarija)	111	66	3	1	1	181
볼리비아 전체	1,575	1,169	85	10	21	2,808

*출처: SNIS(2010) & DGP(2011)

- **(한국의 비교우위)** 의료서비스 지원, 지역보건 역량강화와 관련된 성공경험과 축적된 기술보유
 - 안전한 임신과 출산 프로그램 보급, 의료시설 기반의 산전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과 전문 인력 보유

② 목표 및 한국의 기여

빈곤감소비율과 **MDGs**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건과 의료분야의 불균형 및 불평등 완화

- **(볼리비아의 계획)**
 - 2020년까지 90%이상 국민의 무료의료보험시스템(Sistema Único de Salud Familiar Comunitaria Intercultural)에 대한 100% 접근율 달성
 - 지리·경제·문화·질적인 측면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무료 의료보험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강화, 이를 통한 빈곤퇴치와 사회 불평등 완화
 - 생산성 향상, 영양개선, 주거, 기초서비스 및 권리(건강, 교육, 시민권)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 총체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분별 MDGs 지표개선에 초점
- **(한국의 기여)**
 - 볼리비아의 전반적인 빈곤 감소정책에 기여

- 볼리비아 정부의 무료의료보험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외지역(농촌)과 계층(여성, 원주민, 비공식 부문 근로자)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기여
-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과 보건체육부의 분야별 계획에서 설정한 주요 지표의 개선에 기여
- 의료인력 역량강화(모자보건, 전염성질환 등 질병관리)를 통해 기존시설 유지와 관리를 위한 기반확충
-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 전염성 질환 및 관리를 위한 보건요원 훈련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볼리비아 분야별 계획 중 한국의 지원 분야: 주요 성과지표와 달성목표>

한국의 지원 분야	지표	초기상황	2020년	예산 (2013-2020)
① 의료보험 시스템 접근성 강화	· 의료보험시스템 접근비율	57%(2007) 남: 56%, 여: 58%	90%이상	8,511,801,115
	· 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 비율	23%(2006)	5%미만	
	· 10,000명당 일반의사 숫자	4	6 (지역적 불평등 해소에 주력)	
	· 수준에 따른 시설접근성	-	90%	
	· 출생 시 기대수명	67세(2008) 남: 65세, 여: 68세	71세 남: 70세, 여: 72세	
	· 유아사망률/1000명당	50(2004-2008) 남아: 55, 여아: 44	30 남아: 30, 여아: 30	
	· 산모사망비/100,000명당	310(2004-2008) 229(1999-2003)	100	
	·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67%(2009)	90%이상	
	· 결핵감염률/100,000명당	170(2008)	100	
② 의료보험 시스템 내에서 보건에 대한 인식 강화	· HDI	0.729(2007)	0.080	1,187,251,031
	· Indice de Salud Municipal(ISM)	179개시 0.500 이하(2007)	300개시 0.500 이상	
	· 5세 이하 만성적인 영양 실조 비율	10% (2009)	0%	
	· 보건관련 주민교육의 제도 강화	-	90%	

*출처: 보건 체육 부(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

③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기반시설 구축과 역량강화(인력교육 및 모자보건 필수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의 연계성 도모 및 실시기관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제고

(2) 실행계획

- (사업형태별 추진방향) 시설개선과 의료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① 시설개선 및 확충

- 기존 라파즈(엘알토)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한국병원의 의료 서비스 시설 및 인력개선
- 빈곤율과 지역별 의료시설 현황(3차 병원이 없는 지역) 및 현 정부의 개발우선 지역인 베니와 판도 등 아마존 지역 내 시설 확충

② 역량강화

- 라파즈(엘알토)지역에 건설되어 있는 한국병원의 시설운용 능력 개선을 위해 관련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산전, 산후 관리 교육, 조산훈련 프로그램, 예방접종 전문 인력, 영양관리 등 모자 보건 필수서비스 제공)
- 현지 인력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
- 엘알토 지역 등 인구 밀집 지역의 결핵 관리 사업실시

- 베니 등 아마존 지역을 중심으로 모자보건 역량강화 및 말라리아, 기생충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사업 실시
- 상기 전염성 질환의 매개체 관리를 위한 보건 교육 및 정책 컨설팅 등에 지원함으로써 질병관리 역량강화

*UDAPE(2010): 2009년 베니 지역의 말라리아 발생건수 5,067건

○ (원조조화)

- 다자기구인 판 아메리카 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A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탈리아가 주요 공여 기관으로 활동
- 그 외 아르헨티나,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활발한 분야
- 공여국간 협력체(Mesa Técnica de Cooperación)가 운용되고 있으나, 정보교환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기술적인 협력네트워크로서의 역할강화가 필요
-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파트너 그룹(**GruS**)에 참여를 통한 정보교환, 원조동향 파악과 협력방안 강구

*GruS내 본 분야 담당기관: 캐나다, PAHO

- 스페인, 미주개발은행(IDB)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남협력 활용
- 남남협력 일환으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정부의 보건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뎅기열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 지원 등 고려

3 범 분야(성 평등, 환경)지원 계획

① 기본방향

- 빈곤층 삶의 질 혹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이슈로서 사업 착수와 형성 및 평가단계에서 성 평등·환경 등 범 분야 정책을 개발과정에 통합하여 지원
-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범 분야 지원계획에 대한 고려와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이슈를 개발과정에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아동, 임신여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 여성 등 역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었던 소외계층의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들의 경제적인 역량강화와 기초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MDGs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성 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MDG 3), 모자보건 향상(MDG 5),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달성(MDG 7) 등 범 분야와 관련된 전략 강화
- 개발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환경적인 악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개발효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
 -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전략환경평가(SEA) 또는 환경영향평가(EIA) 계획 포함
 - 사업의 발굴 및 형성 시, 환경 친화적이고 기후변화에 강한(climate-resilient) 사업구상

② 추진계획

- 범 분야 이슈와 관련된 초청연수사업 지원
 -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원순환관리, 산업공정의 녹색화 등
- 교통(교량건설) 프로젝트에서 여성의 일자리 기회 증진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여성전문 인력 양성**
- 지역 간 대중교통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량과 도로건설 등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여성, 아동 등)의 의료, 교육시설 등 기초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성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 시행, 특히, **농업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여성 농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 농촌지역 혹은 지역사회 환경에서 취약계층의 기술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비정규 교육과정 개발
- 아동과 모성사망비 감소를 목표로 임산부를 위한 요양소 건립
 - 여성의 보건과 연관이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서비스 강화
 - 여성의 건강과 생식 등 여성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전달을 통해 모자보건지표 개선
- 타 공여국의 프로그램 분석 및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동의 효과 극대화

4 사업 형태 별 지원계획

1 초청연수

① 기본 방향 및 중점지원 분야

- **교통, 농업, 보건의료 등 본 CPS 중점분야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연수사업의 일관성 강화**
 -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연수과정 발굴과 점진적인 인원확대
 - 기 실시된 KOICA와 EDCF의 프로젝트를 활용한 연수과정 발굴과 추진
- **범 분야 이슈(성 평등, 환경)를 반영한 연수과정 확대와 콘텐츠 강화**
 - 여성 연수생과 분야별 교과과정의 점진적인 확대
 - 여성의 연수 참여 저하 요인을 파악하여 참여 증진
- **다년간 단계별 중장기 연수과정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볼리비아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지원환경 조성**
 - 다년간 기획에 근거한 단계별 학습형태의 실용적인 연수 프로그램 강화
 -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시간 확보
 - 행사성 프로그램 실시의 최소화
 - 수요자(고위급 정책결정자, 중간관리자, 실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② 초청연수의 효과성 제고

- 볼리비아의 개발과제, 연수목적, 중점지원 분야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 강화
 - 볼리비아 관계자와의 정책협의를 조사를 토대로 연수과정 발굴
- 문화, 지리, 언어적 유사성을 활용한 삼각협력 및 국제기구(지역 협력체)와의 공동연수 확대
 - 아르헨티나, 쿠바,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등 볼리비아와의 개발협력 관계가 활발한 신흥 공여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미주기구(OAS) 등 지역 협력체와 연계한 지원방안 검토
 - 기 실시된 프로젝트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 연수사업의 개선을 위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강화
 - 당해 연도 연수과정 평가결과의 활용체계 개선

③ 기관 간 연계강화

- 연수계획수립 시, **KOICA**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추진
- 연수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연수사업과 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 확보
- 연수기관별 평가, 분야별 연수사업 전문가 Pool 구축, 연수전문가 육성을 통해 연수기관의 역량강화

1 전문가 파견

- **(기본방향)**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해 지식, 기술과 경험전수, 현지주민 삶의 질 개선, 문화교류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홍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 종료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중점분야)** 중점프로그램(보건, 농업, 교통)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주제·분야별 집중을 통해 사업의 일관성과 효과성 극대화
- **(지원규모)** 분야별 수요, 국내 연구기관의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효과성)** 볼리비아의 경제사회발전지원, 자립능력 향상제고, 파견분야의 특화를 통해 효과성 제고

2 해외봉사단 파견(World Friends Korea)

- **(기본방향)** 해외봉사단 파견 협정을 통해 파견예정
 - 향후 국별 전략, 볼리비아의 개발수요에 따라 파견규모와 중점 분야 등에서 중장기적 운영전략 모색과 방향성 있는 사업 수행
 - 볼리비아 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지원분야)** 중점프로그램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과 총체적으로 빈곤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건, 농촌개발, 교통 분야에 중점지원
- **(효과성)** 수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상시 수요 발굴 체제 확립,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질적 수준과 성과 제고, 실질적인 기술전수를 통한 인재양성과 활동기관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파견사업의 효과와 지속가능성 제고

① 기본방향

- 국내외적 추세에 따라, 볼리비아의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등 개발조사 사업과 컨설팅형 지원 확대
- 볼리비아 개발계획과 우선순위에 부응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 강화와 협력기반 확대

② 추진계획

-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을 통해 규모, 사업 영역 및 내용의 다양화
 - 사전 타당성조사 중심에서 정책지원형 개발조사를 통해 제도개혁에 관한 기본전략 책정
 - 기자재 공여 혹은 물자중심의 하드웨어를 지원하기보다는 지식 집약적 소프트웨어 공여방식으로 전환
 - 볼리비아 정부의 정책핵심부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거쳐 양국간 협력체계 구축에 활용
- 개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및 중복방지 등을 위해 국내외 원조기관간 협의 강화
 -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발굴 등 초기단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 확대
 - EDCF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개발조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타 공여국과의 공동조사 확대

V. 이행전략

1 예산 및 조직

- (재원배분) 양자원조 중 최소 **70% 이상**을 중점프로그램에 지원
 - 다만, 볼리비아의 긴급요청 및 사업지연 등 상황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중간이행 점검 시(13년) 조정
 - *양국 간 정례협의를 통해 2013-2015 Business Plan 조정
- (조직) 현지 사무소 **인력확충과 역량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ODA 추진**
 - 「재외공관 현지 **ODA 협의체**」를 통해 무·유상 기관, NGO, 기업 등 관련기관의 역량 결집
 - 현지사무소 **인력확충 및 전문가 채용 확대**
 - 원조조화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상주 전담인력 강화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 볼리비아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단계에서부터 관련사업간 연계가능성 검토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일관성 제고
 - 볼리비아 개발계획부와 외자조달청(VIPFE) 등 수원총괄기관과의 협의 하에 지원계획 수립
 -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개발조사, 프로젝트, 기술협력 등 사업간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창출
 - 현지 ODA협의체의 역할강화
 - KOICA, EDCF 및 유관기관 간 섹터별 프로그램 협의회 구성을 통해 소통체계 활성화
 - 기관 간 통합 평가시스템의 체계수립
-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볼리비아 기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
 - 수원기관의 자립 하,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운용·관리 인력에 대한 훈련 시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에 중점
 - 수원기관의 사후관리 예산확보를 고려하여 물자지원을 실시 하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축소
 - 사업의 성격과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하자보수기간(통상 1년)을 적절히 연장하며, 보수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 기능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초청연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사업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3 개발파트너와의 협력전략

1 볼리비아 정부 및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

- (원조일치) 국가개발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 역사적, 사회적인 맥락 등 볼리비아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하,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위험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볼리비아의 공공 재정관리 시스템과 공공조달시스템 등의 협력국 정부시스템 활용 가능성 검토
 -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볼리비아 국가개발전략과 분야별 계획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지원
 - 우선 중점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볼리비아 ODA총괄기관과의 정책협의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
- (원조조화) 프로그램 원조(PBA) 등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한 지원 확대 추세
 - 공여국 간 공동의 목표수립과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협의체가 존재하나, 향후 동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강화 필요
 - 초기 프로젝트와 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향후 바스켓 펀딩, 섹터예산 지원 등의 도입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
 - 프로젝트, 기술협력 중심⇒ 바스켓펀딩,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시범실시⇒적용확대 및 심화
 - 타 공여국과의 원조분업 강화를 위해 현지사무소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시, 중점 분야별로 상주 전문가 파견 고려
 - 남남협력과 공동연수 등의 형태로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확대

< 분야별 파트너 십 그룹 참여 계획 >

파트너십그룹명/ 관계부처		현황	참여 공여국	참여계획
교통	·국도 관리청	·2011. 7. 21. 한국의 GruS 가입, 향후 협력 방안 논의 확대	CAF, EU, IDB, JICA 등	·원조 공여국 회의 참여 ·정보교환
농업	·농업과 토지 개발부 ·환경 수자원 부		독일, WB,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EU, 스위스, JICA 등	·원조 공여국 회의 참여 ·정보교환
보건	·보건체육부		PAHO, WHO, 이탈리아 등 그 외 신흥 공여국의 참여가 활발한 분야	·원조 공여국 회의 참여 ·정보교환 ·공동연구, 남남협력 활용 가능성 제고

□ **ODA 규모 확대, NGO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 ODA 규모 확대에 따른 자원조성 가능
-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및 지역전문가 인력 **Pool** 구축

□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NGO, 기업 등 **ODA**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기술 도입, **NGO**와 기업의 원조활동 정보 공유
- 기관 간 인적교류 확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 민간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역량 강화
- 공관중심으로 정부기관, NGO, 기업이 함께 모여 공동사업 발굴과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 개최

□ **PPP사업 확대**

- '13년까지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며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 민간부문의 참여 및 **EDCF**와의 연계 추진

□ **NGO 및 기업의 ODA 역량강화 지원**

- 볼리비아 현지 **NGO**의 역량강화 및 기업의 참여제고를 위해 **ODA** 교육 및 봉사단 파견 등의 지원확대
- 정부의 ODA 사업 및 NGO 사업에 대한 평가 시 공동참여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NGO와의 연계 사업 발굴과 역량강화 추진

VI. 성과관리 방안

1 모니터링

- **(통합 모니터링)** 투입 및 성과의 적시성 있는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현행 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ODA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ODA 사업등록**
 - 사업별 진행, 예산집행, 현지여건 변화 등 추진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
 - '현지사무소-볼리비아 정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회의를 정례화 하여 정보공유
- **(위험관리)** 중점분야별로 체계적인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내·외부의 위험요인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필요시 전략수정
 - 현지사무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양자대화 및 공여국회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 발생여부를 적시에 확인

<리스크 매트릭스(예)>

위험요인	Source	관리방안
1. 세계/지역경제 환경의 악화	외부	· 연도별 전략이행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상위전략과 프로그램 수정
2.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및 환경오염	외부/ 수원국	· 사업수행 시, 사회·환경영향 평가지원 ·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재원고려 · 범 분야 주제를 고려한 지원확대

3. 거시 경제 환경 악화	수원국/ 공여국	· 경제 환경 변화를 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 투입 ·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관리
4. 공공부문 부패 등 거버넌스 미비	수원국	· 사업진행의 투명성 지속 모니터링 · 제도 확충·공공부문 역량강화 지원 확대
5. 사회 계층 간 갈등발생, 현재 정책의 지속 가 능성 등 정치적 위험요인	수원국	· 현재 정책지속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지원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
6. 한국 내 공여 기관 간 통합 적 지원결여	공여국	·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ODA 정책 수립 · 원조규모 확대, 중장기 원조효과를 위한 개발사업 실시 · 부처 간 통합 CPS 작성, 공동 정책협의, 연계사업 강화를 통한 통합된 ODA 시스템 구축 · 사업, 프로그램 간 연계성 강화
7. 공여기관 간 협력약화	외부/ 공여국	· 현지 인력 증원을 통한 공여국 대화채널 참여 확대 · CPS 공개를 통한 효과적 원조분업 및 자원배분 · 현지 공여국 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실시

2 평가방안

① 사업 및 프로그램 평가

- (실적평가) 사업 시행기관별로 사업 종료 전후에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대형사업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평가 실시
- (사후평가) 사업종료 후 일정기간(1-2년) 경과 후 해당사업의 효과 및 영향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 대형사업 또는 주요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제3자가 수행하는 외부평가 실시
 -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선정 단계부터 기대되는 산출(output), 결과(outcome), 효과(impact)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계
- (주제별 평가) 모니터링, 실적평가 및 사후평가 시 성 평등과 환경 등 범 분야에 대한 평가포함
 - 필요시 해당 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개별적으로 추진
- (볼리비아의 참여 제고) 평가 시, 볼리비아 측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결과 공유
 - '13년 중 볼리비아와의 공동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공동 평가비율 제고

② 국별 협력전략 평가

- **(목적)** 국별협력전략의 주요 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14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15년에 종료평가를 실시
 - 이행보고서('14년) : 해외사무소와 합동으로 중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략수정 및 목표 재정립
 - 종료평가('15년) :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별협력전략 종료 6개월 이전에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차기전략에 반영
- **(평가방식)** 중점분야별로 '결과-지표-출발점-목표-검증수단'을 반영한 '결과 평가 틀'(Result Framework)을 수립하고, 목표 대비 달성 현황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
- **(평가내용)** 사업평가, 정책평가 및 주제별 평가 실시
 - 사업평가 : 국별 협력전략 기간 중 수행한 전체 사업의 과정 및 영향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
 - 정책평가 : 국별협력전략 및 그에 따른 성과를 DAC의 5대 평가 지표*에 기반 하여 평가

*주인의식, 원조일치, 원조조화, 결과지향, 상호책임

 - 주제별평가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성 평등, 환경 등 주요 범 분야에 대해 평가 실시
- **(환류계획)** 개별사업 및 국별협력전략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VII. 볼리비아 ODA관련 고려사항

□ 볼리비아의 정치·사회·문화적인 다양성 존중

- 2009년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다민족(**Plurinational**)국가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다민족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국가 정체성 규정
 - 인종, 언어, 문화적인 다양성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정치·경제·사회정책 고려
- 특히, 상호문화성과 문화적인 다원주의 인정

□ 지방자치 분쟁 등 정치·사회적인 갈등 발생

- 현 정권의 주요정책인 천연자원에 대한 확보와 부의 배분문제와 관련하여 지역과 계층 간 갈등 확산
- 취약한 특정 지역과 계층에 대한 선별적(targeting)지원필요
 - 거시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의 특정 지역, 계층, 분야에 대한 특화된 지원필요
- 사회계층 간 합의를 토대로 하는 안정된 정치체제 구축 필요

□ 정책적인 지속가능성 여부

- 사회 불평등과 인종·계층·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권의 임기종료 이후, 본 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와 향후 실현가능한 빈곤감소 비율의 불확실성 존재

□ 볼리비아 정부의 ODA에 대한 의존감소 노력

- 자체적인 재정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ODA 수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전지,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 확대

VIII. 전망 및 2016-2020 계획

- **(정책방향)** 현재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 2006-2011이후 새롭게 수립되는 국가개발계획도 기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본 CPS는 2011년 이후 수립되는 국가개발계획과 기존의 정부 프로그램(2010-2015),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섹터별 전략 등 부처·분야별 연계성(Intersectorialidad)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원조일치 고려
 - 본 CPS의 성과에 따라 '15년 중 향후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16년 차기 CPS에 반영

- **(수원조직)** 볼리비아 정부조직의 다원성 고려
 - 현재 지방정부의 제도적인 역량미비로 지방정부 주도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나, 정부조직의 독립적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향후에는 4가지 수준*의 부처 간 자치, 경쟁, 보완 기능을 고려한 지원확대

*4가지 수준(level): ①중앙정부 ②주정부 ③시정부 ④원주민

- **(중점분야)** 현재 제안되고 있는 세 분야(교통, 보건, 농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점차적으로 중점분야의 수를 감소하며 프로그램의 목표와 기간 및 범위를 장기적으로 설정·수행
 - 현재 CPS가 볼리비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전환과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면, 향후에는 산업이후의 변화를 반영한 중점분야 고려
 -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체에너지 등 중점분야와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과제반영
 - 타 공여국의 지원이 미비한 분야*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자원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강화 지원

- 하드웨어적인 원조형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강화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천연가스산업 및 기술개발, 광물자원
첨단기술, 석유산업개발 및 운영, 전력기술, 과학기술전략
및 정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전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 등)

*주요 공여기관의 지원 분야 Matrix 참조(pp.24-26): 경찰, 식량안보, 무역과
수출, 통신, 대안 에너지, 광업

□ (지원형태) 무·유상 연계 시범사업의 확대 및 심화

- 본 CPS의 중점분야 중 교통부문에서 <EDCF 인프라(교량건설) +
KOICA 타당성 조사, 연구지원, 역량강화>가 연계모델의 시범사업
으로 제안되고 있는 바, 본 사업이 실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CPS에서는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방안을 통한 지원이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 (원조조화) 공여국 간의 주요 협의체인 GruS 회원국으로 가입함으 로써, 동 기구와의 공동사업 발굴과 추진 가능

- 향후, 동 회의체의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회원국별 부여된 섹터활동을 담당함으로써 타 공여국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구축 가능
- 동 협의체의 비회원국이나 볼리비아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신흥 공여국과의 협력방안 강구
- 미주기구(OAS), 미주개발은행(IDB),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 지역협력체 및 분야별 국제기구와의
협력방안 활성화

[참고1] 남미지역의 국가별 열대풍토병 일람표

질환명 \ 국가	아르헨티나 (Argentina)	볼리비아 (Bolivia)	브라질 (Brazil)	칠레 (Chile)	콜롬비아 (Colombia)	에콰도르 (Ecuador)
말라리아(Malaria)	+	+	+		+	+
아프리카수면병 (African trypanosomiasis)						
사가스병(Chagas' disease)	+	+	+	+	+	+
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						
1)Visceral	+	+	+		+	
2)Cutaneous & mucocutaneous	+	+	+		+	+
아메바증(Amebiasis)		+	+	+	+	
람블편모충증(Giardiasis)		+	+	+	+	
톡소포자충증(Toxoplasmosis)	+	+	+	+	+	+
폐포자충증(Pneumocystosis)	+	+	+	+	+	+
와포자충증(Cryptosporidiosis)			+	+		
사상충증(Filariasis)			+			
회선사상충증(Onchocerciasis)			+		+	+
주혈흡충증(Schistosomiasis)			+			
선모충증(Trichinosis)						
주혈선충증(Angiostrongyliasis)			+		+	
구충증(Hookworm infection)	+	+	+	+	+	+
분선충증(Strongyloidiasis)	+	+	+		+	+
장흡충증(Intestinal trematodiasis)			+			
유구낭미충증(Cysticercosis)	+	+	+	+	+	+
포충증(Hydatid disease)	+		+	+		

*출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1)

[참고2] 주요 빈곤지표(Key Poverty Indicators)

인간개발	연도	순위	지수
HDI(Human development)	2010	95(169)	0.643
인구	연도	수, 비율	지수
인구(명)	2011	10,118,683명	
인구증가율(%)	2005-2015	1.7%	
도시인구비율(%)	2008	60%	
15세 이하 인구비율(%)	2009	37%	
65세 이상 인구비율(%)	2009	5%	
지출	연도	비율	지수
공공보건 지출(GDP 중 %)	2007	5%	
공공교육 지출(GDP 중 %)	2002-2005*	6.4%	
빈곤	연도	비율	지수
절대빈곤계층(%)	2008	32.7%	
지니계수	2010		0.643
투명성	연도	순위	자수
CPI지수	2010	110	2.8
교육	연도	비율	자수
성인문해율(%)	2007	91%	
초등교육 등록율(%)	2008	90%	
초등교육 이수율(%)	2007	98%	
보건	연도	나이, 비율, 수	지수
기대수명(세)	2008	66세	
15~60세 성인 1000명당 사망자수(명)	2008	196명	
100,000명 당 산모 사망비(명)	2008	180명	
전문 인력에 의한 출산율(%)	2009	67%	
15~49세 HIV/AIDS 감염비율(%)	2007	0.2%	

결핵 발병 건(십만 명당)	2008	170명	
1000명당 유아사망자 수(명)	2009	51.2명	
1000명당 아동사망자 수(명)	2009	39.7명	
기초서비스	연도	비율	
향상된 위생서비스 이용비율(%)	2008	48.4%	
향상된 식수접근비율(%)	2008	74.6%	
양성평등	연도	비율	
여성의식 점유율(%)	2009	23%	
비농업분야의 여성비율(%)	2009	34.7%	
기타	연도	수, 비율	
인터넷 사용자(명)	2009	1백만 명	
이동통신사용자(명)	2009	7백만 명	
농경지 비율(%)	2008	34%	
산림지역(sq. Km)		571,960 sq. Km	
도로 포장률(%)	2004	7%	
1인당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 kg)	2007	571Kg	
1인당 이산화탄소 방출량(kg)	2006	1220Kg	
GDP 대비 군비지출(%)	2009	1.3%	

*출처: World Bank, UNDP(2010) & UDAPE(2010)

[참고3] 주요 경제지표(최근 5년간)

구분	경 제 지 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e	2010 ^f
국 내 경 제	GDP	억 달러	115	131	166	182	193
	1인당 GDP	달러	1,218	1,381	1,713	1,842	1,931
	인구	명	9,353,826	9,524,495	9,694,113	9,862,860	10,118,683
	경제성장률	%	4.7	4.6	6.1	3.4	4.0
	산업생산증가율	%	4.5	1.7	3.1	-3.5	-
	국내총투자/GDP	%	13.9	15.2	17.6	16.1	17.1
	실업률	%	7.8	7.5	7.5	8.5	8.3
	재정수지/GDP	%	4.5	1.7	3.2	0.1	-4.0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11.7	11.8	0.3	3.5
대 외 거 래	환율(Bs/미 달러)	달러	8.01	7.85	7.26	7.07	7.08
	경상수지	백만 달러	1,317	1,591	2,015	809	843
	경상수지/GDP	%	11.5	12.1	12.1	3.8	3.4
	상 품 수 지	백만 달러	1,243	1,214	1,807	740	915
	상품수지/GDP	%	10.8	9.3	10.9	4.1	4.7
	수 출	백만 달러	3,875	4,458	6,448	4,819	5,779
	수 입	"	2,632	3,244	4,641	4,079	4,864
	서 비 스 수 지	"	-350	-401	-539	-507	-575
	수 입 (Credit)	"	477	499	500	-	-
	지 급 (Debit)	"	827	900	1,039	-	-
	자본수지	"	224	385	286	-	-
	F D I 순유입	"	277	363	509	-	-
	외환보유액	"	3,192	5,318	7,722	8,581	8,059
외 채 현 황	총외채잔액	"	5,799	4,947	5,372	5,482	6,209
	단 기 외 채	"	6	257	242	634	634
	총외채잔액/GDP	%	50.6	37.7	32.3	32.0	32.2
	외채상환액/총수출	%	14.3	12.0	7.2	8.5	8.4

*출처: World Bank, 수출입은행(2010) & CIA

[참고4]

볼리비아 CPS 수립경과 보고

□ **사전정책협의회 (2011.7.16-23, 볼리비아(라파즈))**

- 출 장 단 : 외교부, 기재부, KOICA, 수출입은행
- 방문기관 및 면담인사
 - 국가개발계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 등 8개 정부부처, Viviana Caro 장관 외 29명
 - 독일국제협력기구(GIZ) 및 NGO 등 4개 기구, Dr. Detlef Klain 외 5명
- 주요내용 : CPS 1차 초안의 중점분야(교통, 농촌개발, 보건의료) 선정에 대한 볼리비아 정부 측 의견청취 및 볼리비아 국가개발계획(PND)과 정부 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2010-2015)의 우선순위 확인

□ **1차 관계기관 협의회 (2011.8.31, 외교통상부)**

- 참석자 : 국무총리실 등 총 15기관
- 주요내용 : CPS 수립계획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간 공유, 각 부처의 참여시점 · 국별 T/F운영 · 사전정책협의를 관계부처의 참여 방안 논의

□ **2차 관계기관 협의회 (2011.10.27, 외교통상부)**

- 참석자 : 외교부, 보건복지부, KOICA, 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주요내용 : 볼리비아 CPS 2차안에 대해 검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CPS 계획에 반영

□ **KOICA-수출입은행 협의회 (2011.11.9, KOICA)**

- 참석자 : KOICA(중남미팀, 정책총괄팀), EDCF(중남미팀)
- 주요내용 : CPS 중점지원 분야별무·유상 연계모형과 협력방식 논의

□ **전문가 토론회 (2012.2.17, 외교통상부)**

- 참석자 :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관련부처, 기관관계자, 지역연구자
- 주요내용 : CPS의 개발환경, 중점분야, 성과관리 방안 등 내용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지역 · 분야별 전문가 의견청취

[참고5] 참고문헌

1. 국내외 문헌

- 김우성(2008), “볼리비아의 언어정책과 원주민 교육”, *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 문남권(2010), “볼리비아 자치분쟁의 원인과 현황”, *중남미 연구*, 제28권 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상현(2007),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임상래, 이상현, 박윤주(2010), *중남미 의료시스템 개혁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주 볼리비아공화국 대사관(2010), *볼리비아 개황*
- 하상섭(2011), “남미 볼리비아 수자원 관리 및 관개농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호,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2003), *볼리비아 기술교육원 건립사업(2000~2002)사업종료 산출물*
------(2011), *볼리비아 CP*, 중동 중남미부 중남미팀
- 한국수출입은행(2010), *2010 개도국 경제 분석과 전망*
------(2010), *세계국가편람*, 중남미
- (2011), *볼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2011), *한국형 기생충 관리 ODA 사업개발*
- ABC(Adminstradora Boliviana de Carreteras, 볼리비아 국도관리청), *Memoria Institucional 2008-2009*
- Alvaro Lazo Suárez(2009), *Área macrosectorial tomo IV, el sector del transporte*, UDAPE
- European Commission(2007), *Bolivia Country Strategy paper 2007-2013*
- Gustavo Medeiros Urioste(2009), *Área macrosectorial tomo VII, el sector agropecuario*, UDAPE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8), *Bolivia, the Bank's Country Strategy with Bolivia 2008-2010*
- MAS-IPSP(볼리비아 정부), *2010-2015 Programa de Gobierno, Bolivia País Líder*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Pública(볼리비아 재정경제부), *The Bolivia*

Economic Performance and Investment Program 2010-2015

Ministerio de Desarrollo Rural, Agropecuario y Medio Ambiente(볼리비아 농업 및 환경부, 2007), *Revolución rural, agraria y forestal*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y Agua, 볼리비아 환경 및 수자원부, 2009), *Plan Nacional de Saneamiento básico 2008-2015*

------(2009), *Inventario Nacional de Presas Bolivia 2010*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del Desarrollo(볼리비아 개발계획부), *Lineamineto estratégico Plan Nacional de Desarrollo, Bolivia digna, soberana, productiva y democrática para vivir bien 2006-2010*

------(2008), *Lineamiento metodológicos para la elaboración de los planes sectoriales de desarrollo*

------(2007), *Mecanismo Nacional de adaptación al cambio climático*

------(2010),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para el vivir bien*

------(2012), *Directrices de planificación e inversión pública para la gestión 2010*

Ministerio de Salud y Deportes(볼리비아 보건과 스포츠부), *Plan Estratégico Institucional 2010-2015*

------(2009), *Plan Sectorial de Desarrollo 2010-2020, hacia la salud universal*

OECD-DAC(2007),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country chapters Bolivia*

------(2008), *Encuesta de 2008 de seguimineto de la Declaración París-Ayuda más eficaz para 2010*

------(2010), *La cooperación Sur-Sur en la eficacia de la ayuda, 110 historias de caso de socios en cooperación sur-sur y triangular*

Oxford Policy Management(2008), *Making aid more effective through gender, rights and inclusion: evidence from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Bolivia case study*

UNDP(2010), *Boletín sobre el estado del desarrollo humano en Bolivia*

------(2010), *Informe regional sobre desarrollo humano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 *Los cambios detrás del cambio, desigualdades y movilidad social en Bolivia*

UDAPE(Unidad de Análisis Políticas Sociales y Económicas, 경제·사회정책 분석부 2010), *Sexto informe de progreso de los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en Bolivia*, Comité Internacional Metas de Desarrollo del Milenio
World Bank(2009),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terim strategy note for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or the period FY2010-FY2011*, Bolivia, Ecuador, Peru and Venezuela Country management uni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2. 웹사이트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http://www.nis.go.kr>(2011년 5월 18일)

국무총리실, <http://www.odakorea.go.kr>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 연구소, <http://www.ilas.kr>(2011년 5월 23일)

CIA(미국중앙정보국),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2011년 5월 17일)

EIU(2011), *Country report Bolivia*, <http://www.eiu.com>

INE(Instituto Nacional Estadística de Bolivia, 볼리비아 통계청), <http://www.ine.gob.bo>(2011년 5월 22일)

GruS(Grupo de Socios para el Desarrollo de Bolivia, 볼리비아 개발을 위한 공여국 협의체), <http://www.grus.org>(2011년 8월 23일)

KOICA statistics, <http://www.stat.koica.go.kr>

UNICEF, Por los niños, niñas, adolescentes de Bolivia, <http://www.unicef.org/bolivia>

VIPFE(Vice Ministerio de Inversión Pública y Financiamiento Externo, 공공투자 및 금융차관부), <http://www.vipfe.gob.bo>(2011년 8월 23일)

World Bank Group, <http://www.doingbusiness.org>(2011년 5월 24일)

WHO, *Bolivia health profile*, <http://www.who.int>